

발 간 등 록 번 호

54-3560000-100006-12

균형과 화합 위에 서구
내일을 열어나가는

2025 서구 성인지통계 요약본

2025 Seo-gu
Gender Statistics



목 차

01. 개요 1

- 성인지통계란 5
- 성인지통계의 필요성 5
- 성인지통계의 법적 근거 6
- 성인지통계의 전개 과정 6
- 2025 서구 성인지통계 연구의 목적과 범위 7
- 2025 서구 성인지통계 연구 내용 7
- 2025 서구 성인지통계 연구 방법 7
- 2025 서구 성인지통계 지표 체계 8

02. 양성평등 리포트 9

- 서구의 고령인구와 생활 11
- 서구의 1인 가구와 생활 15
- 서구의 경제활동과 비경제활동 19
- 서구의 노동환경 23
- 서구의 일-가정 양립 27
- 서구 지역 내 아동돌봄 31
- 서구의 사망과 건강관리 33
- 서구의 자살과 정신건강 37
- 서구의 일상 속 안전 인식과 대응 41
- 서구의 정치(선거)참여와 사회참여 45
- 서구의 정치와 행정분야 대표성 49

CONTENTS

03. 영역별 젠더그래픽스 53

• 주민등록 여성인구 및 여성비율	55
• 연령별 인구 및 성비	56
• 성별 중위연령	57
• 부양비 및 성별 노령화지수	58
• 등록외국인 추이 및 여성비율	59
• 국적별 등록외국인 및 여성비율	60
• 결혼이민자 추이	61
• 합계출산율 추이	62
• 조출산율 및 모의 출산연령	63
• 출생률 제고를 위한 정책적 수요	64
• 여성 가구주	65
• 혼인과 초혼 연령	66
• 이혼	67
• 보육, 유아교육 대상 아동	68
• 시설유형별 어린이집 현황	69
• 어린이집/유치원 여성 교원	70
• 학업중단률	71
• 초/중/고 직위별 여성 교원	72
•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73
• 평생교육 참여 현황	74
• 성별/산업별 취업자	75
• 성별/직업별 취업자	76
• 치매진료환자 및 치매유병률	77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성비율	78
• 문화시설에 대한 견해	79
• 체육시설에 대한 견해	80
• 서부경찰서 가정폭력 피해자 현황	81
• 서부경찰서 성폭력 피해자 현황	82
• 지역안전지수	83
• 성별 통근(통학) 교통 수단	84

01

개 요

Contents

Seo-gu Gender Statistics

- 성인지통계란
- 성인지통계의 필요성
- 성인지통계의 법적 근거
- 성인지통계의 전개 과정
- 2025 서구 성인지통계 연구의 목적과 범위
- 2025 서구 성인지통계 연구 내용
- 2025 서구 성인지통계 연구 방법
- 2025 서구 성인지통계 지표 체계

성인지통계란?

- 개별차원의 통계에서 남녀로 분리되어 있는 통계로 성주류화 정책을 실천하기 위한 핵심적인 전략임
- 여성과 남성이 처한 조건과 사회공헌, 남녀의 필요와 특수한 문제를 반영하고자 생산, 제시된 통계자료 일체를 의미함
- 사회의 여러 측면에서 성별로 불평등한 현상을 보여주고 이를 철폐하기 위해 만들어진 모든 통계임

성인지통계의 필요성

남녀간 차이제시
남녀 차이 제시를 통한 이해 제고 및
성역할 고정관념



불평등한 상황에 대한 점검

남녀의 차별적인 상태를
통계로 비교하여
성별간 불평등한 상황을 점검

양성평등정책 효율성 제고

모든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성인지적 분석, 성별영향평가 가능



**양성평등한 상태로의
이정표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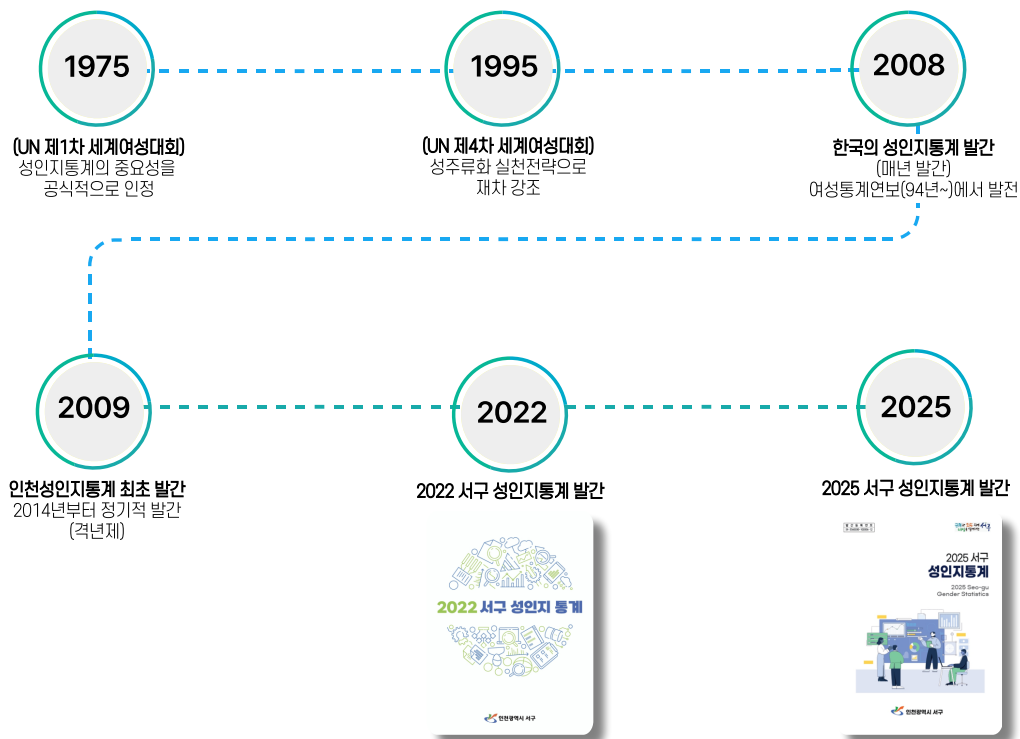
양성평등한 이상적인 상태의
기초자료로 제시

출처: 한국성인지통계시스템

성인지통계의 법적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성인지 통계)
- 성별영향평가법 제6조(분석평가의 고려사항)
- 통계법 제6조(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 인천광역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제9조(성인지 통계)
- 인천광역시 서구 양성평등기본조례 제6조(성인지 예산서 등 작성)

성인지통계의 전개 과정



2025 서구 성인지통계 연구의 목적과 범위

- 연구목적 : 서구 각 분야별 사회통계 및 지표를 검토하여 서구의 성별 차이와 특성을 파악하는 통계를 생산함으로써 양성평등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성주류화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공간적 범위 : 인천시 서구 전역
- 시간적 범위 : 최근 3개년(2022~2024년)
 - 2024년 자료 미공개 : 2021~2023년
 - 시계열적 추이가 필요한 경우 : 10년 이상
 - 지표 특성상 2024년 자료만 수록

2025 서구 성인지통계 연구 내용



2025 서구 성인지통계 연구 방법



2025 서구 성인지통계 지표 체계

12개 영역 378개 지표



02

양성평등 리포트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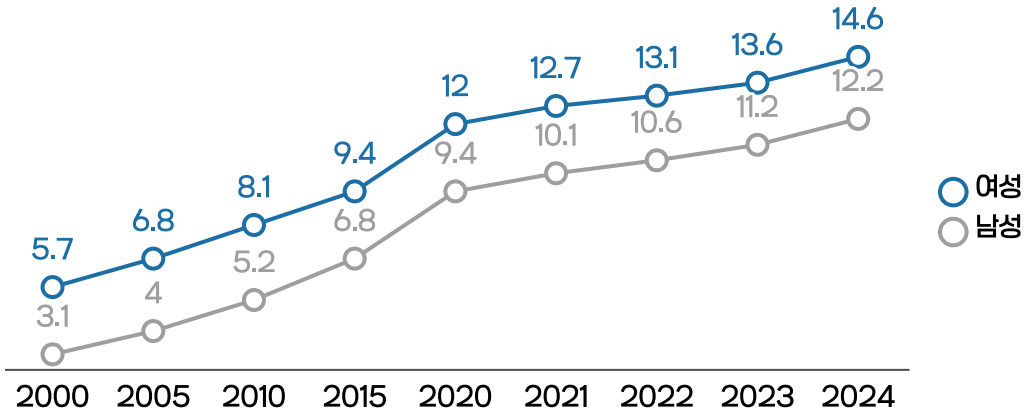
Seo-gu Gender Statistics

1. 인구와 생활
 - 서구의 고령인구와 생활
 - 서구의 1인 가구와 생활
2. 경제활동과 노동환경
 - 서구의 경제활동과 비경제활동
 - 서구의 노동환경
3. 일-가정 양립과 돌봄
 - 서구의 일-가정 양립
 - 서구 지역 내 아동돌봄
4. 건강
 - 서구의 사망과 건강관리
 - 서구의 자살과 정신건강
5. 안전
 - 서구의 일상 속 안전 인식과 대응
6. 참여와 대표성
 - 서구의 정치(선거)참여와 사회참여
 - 서구의 정치와 행정분야 대표성

서구의 고령인구와 생활

서구 성별 주민등록인구 대비 고령인구 비율(2000~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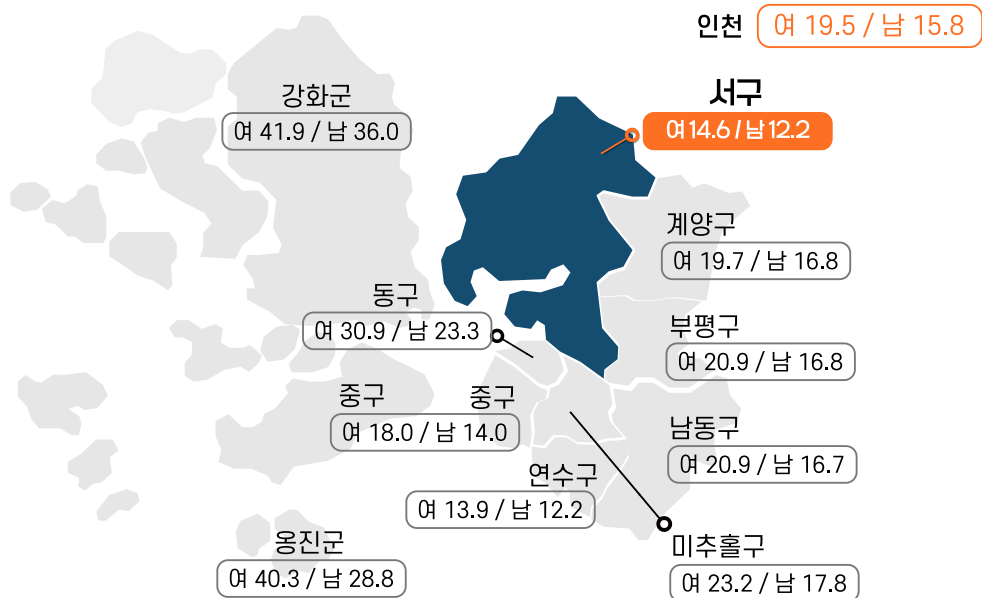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외국인 제외, 12월말 기준)
주 : 성별 주민등록인구 대비 고령인구 비율임

군구별 성별 주민등록인구 대비 고령인구 비율(2024)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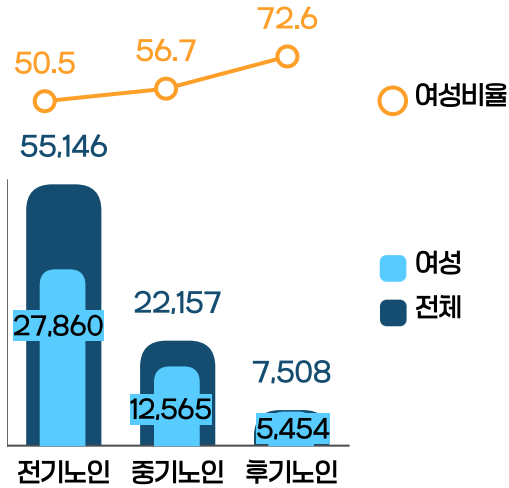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외국인 제외, 12월말 기준)

1. 인구와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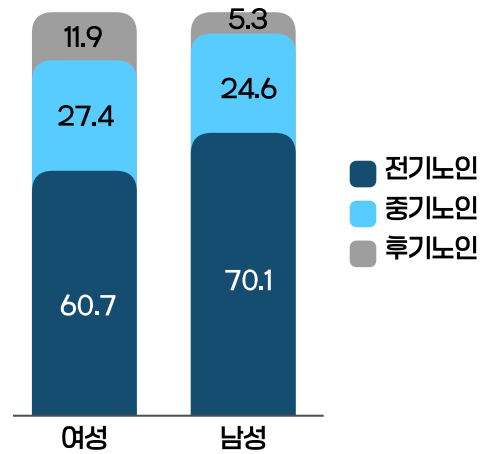
서구 연령계층별 노인인구(2024)

단위 : %, 명



서구 연령계층별 노인비중(2024)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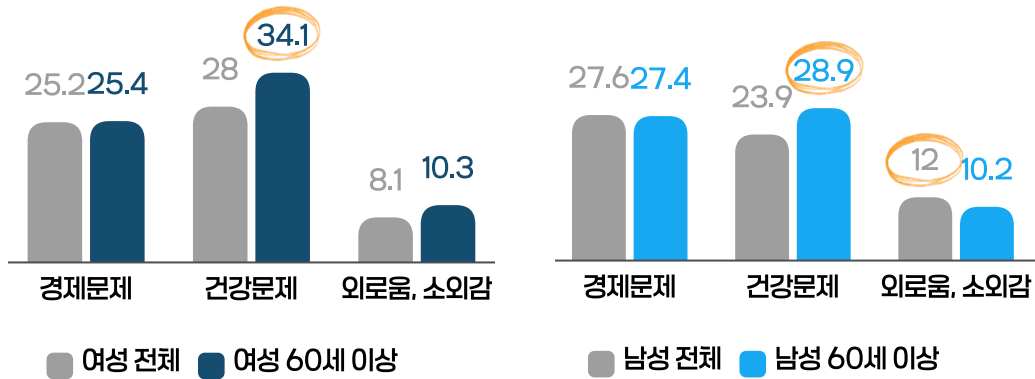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외국인 제외, 12월말 기준)

주 : 전기노인은 65~74세, 중기노인은 75~84세, 후기노인은 85세 이상 인구임

서구 노후에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문제(2024, 1순위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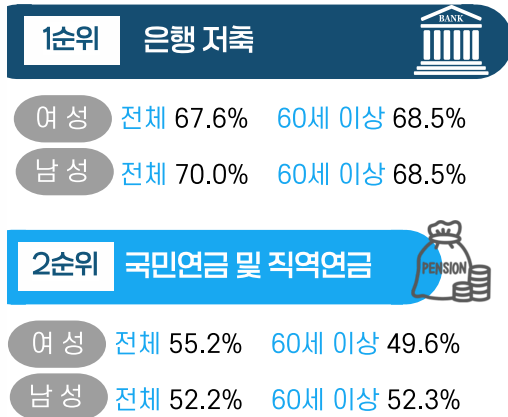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인천광역시, 사회조사 원자료 분석(응답률이 높은 3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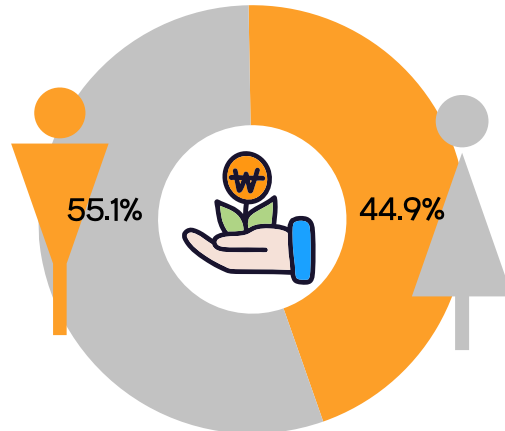
서구의 고령인구와 생활

서구 노후생활자금 준비 유형(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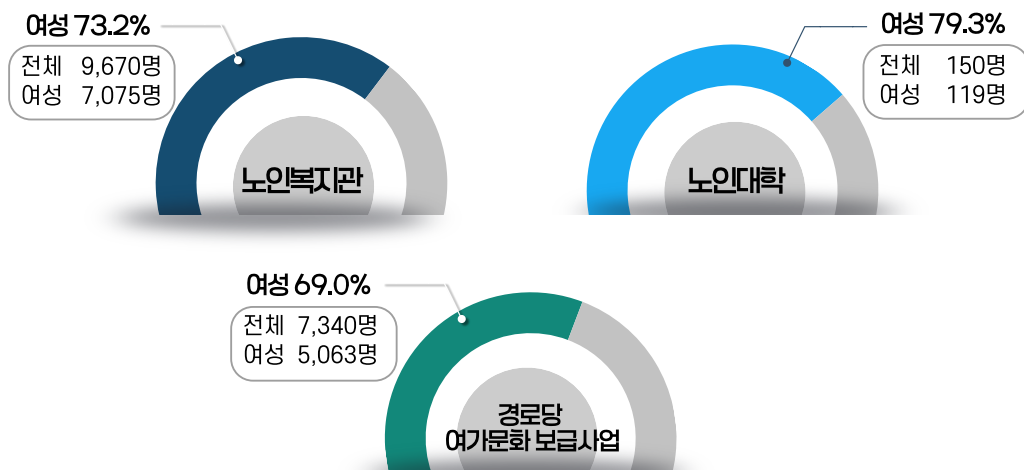
자료 : 인천광역시, 사회조사 원자료 분석
주 : 복수응답임

서구 국민연금가입현황(2024)



자료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

서구 노인 여가프로그램 참여 현황(2024)



자료 : 서구청 행정자료

■ 서구 여성의 고령인구 비율은 남성보다 높으나 여성과 남성 모두 인천시 평균보다는 낮음

- 2024년 서구 여성의 고령인구비율은 14.6%로, 남성 고령인구비율(12.2%)보다 2.4% 앞섬
- 그러나 여성과 남성 고령인구 비율은 각각 인천시 평균(여성 19.5%, 남성 15.8%)을 밑도는 수준임
- 여성고령인구 비율은 연수구(13.9%)에 이어 10개 군구 중 2번째로 낮으며, 남성은 연수구(12.2%)와 더불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임
- 전기노인(65~74세)는 남성비중(70.1%)이 여성비중(60.7%)보다 높으나 중기노인(75~84세)와 후기노인(85세 이상)은 여성의 비중이 남성 비중을 상회함. 특히 후기노인인구의 여성비중은 11.9%로 남성(5.3%)보다 약 2배 이상 높음

■ 서구 60세 이상 여성과 남성 모두 노후에 '건강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느끼고 있음

- 2024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서구 여성은 '건강문제'(28.0%) > '경제문제'(25.2%) > '외로움, 소외감'(8.1%) 순으로 노후에 심각하게 느끼는 문제라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60세 이상 여성은 '건강문제'가 걱정이라는 응답률이 34.1%로 더 높아짐
- 서구 전체 남성은 '경제문제'(27.6%) > '건강문제'(23.9%) > '외로움, 소외감'(12.0%)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음
- 그러나 60대 이상 남성에서는 '건강문제'를 꼽은 비율이 28.9%로 상승함
- 노후에 심각하게 느끼는 문제로 '외로움, 소외감'을 선택한 전체 여성은 8.1%인 반면, 남성은 12.0%로 남성이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서구민은 '은행 저축'과 '국민연금 및 직역연금'을 통해 노후생활 자금을 준비하는 것으로 조사됨. 그러나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남성보다 낮음

- 2024년 사회조사에서 서구민은 '은행 저축'(1순위)과 '국민연금 및 직역연금'(2순위)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준비하는 것으로 드러남
- 특히, '국민연금 및 직역연금'의 경우, 60세 이상 여성은 49.6%, 남성은 52.3%로 여성응답률이 낮음
- 실제 2024년 국민연금가입현황을 보면, 여성은 44.9%, 남성은 55.1%로 여성의 가입률이 낮은 것이 확인됨

■ 서구의 노인 여가프로그램 참여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음

- 2024년 사회조사에서 노후에 심각하게 느끼는 문제로 '외로움, 소외감'을 꼽은 남성비율은 여성보다 높았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공적 영역에서 제공하는 각종 노인 여가프로그램의 참여율은 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참여자의 여성비율은 73.2%, 노인대학은 79.3%에 달함. 경로당 여가문화보급사업 참여자의 69.0%는 여성이었음

[1-3 고령인구 추이]

[1-12 연령계층별 노인인구]

[2-32 노후에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문제]

[2-33 노후생활자금 준비 여부 및 유형]

[7-1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7-31 노인대학 지원 현황]

[7-37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 참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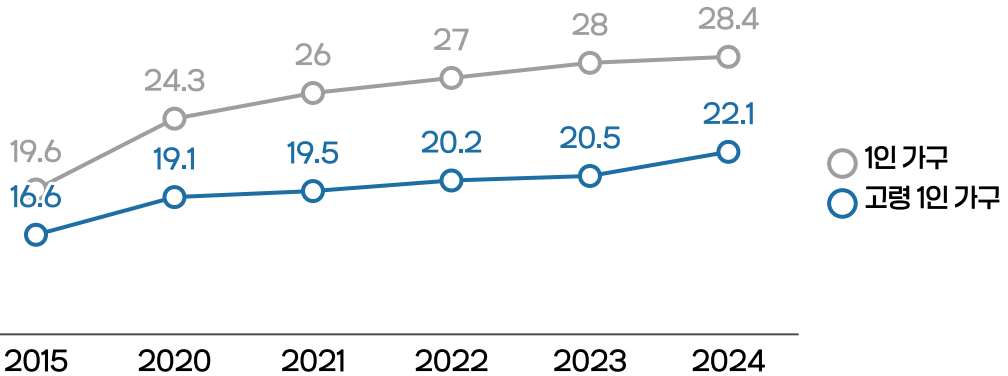
[7-38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이용 현황]

[12-1 군구별 연령계층별 인구]

서구의 1인 가구와 생활

서구 1인 가구 및 고령 1인 가구 비율(2015~2024)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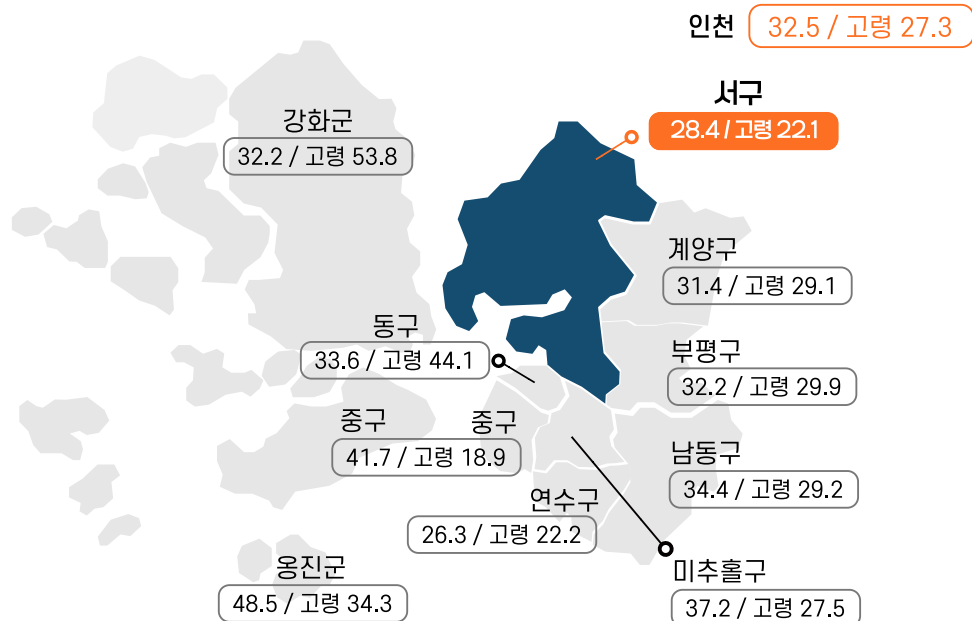


자료 :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

- 주 : 1) 1인 가구비율은 일반가구 대비 1인 가구의 비율임
2) 고령 1인 가구 비율은 1인 가구 대비 고령 1인가구의 비율임

군구별 1인 가구 및 고령 1인 가구 비율(2024)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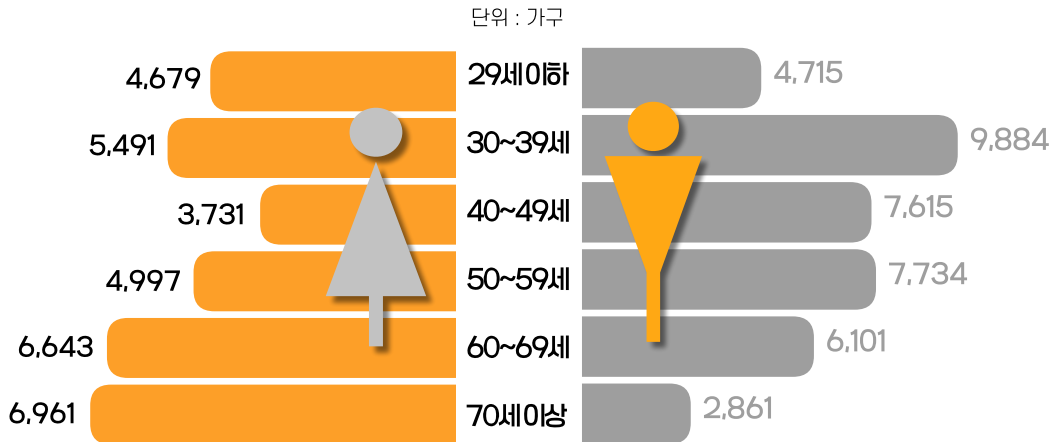


자료 :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

- 주 : 1) 1인 가구비율은 일반가구 대비 1인 가구의 비율임
2) 고령 1인 가구 비율은 1인 가구 대비 고령 1인가구의 비율임

1. 인구와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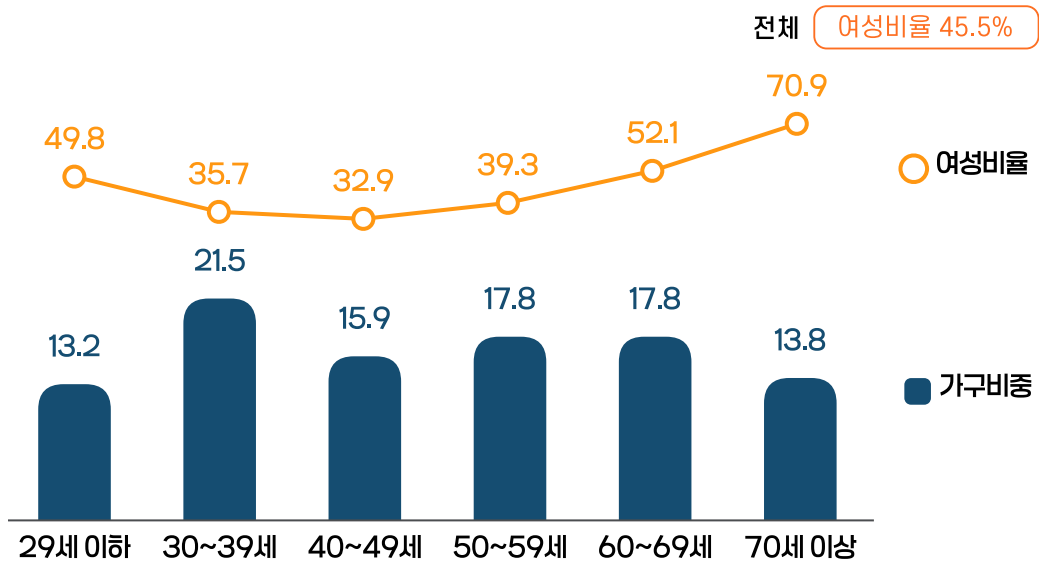
서구 성별/연령별 1인 가구(2024)



자료 :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

서구 1인 가구 비중 및 연령대별 여성비율(2024)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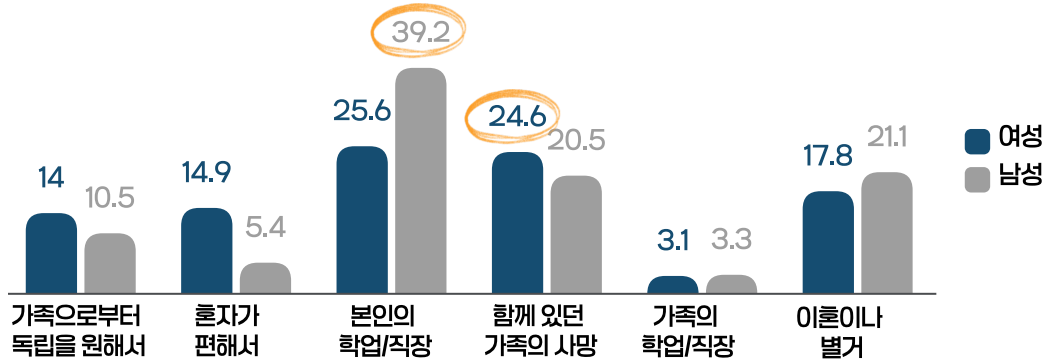


자료 :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

서구의 1인 가구와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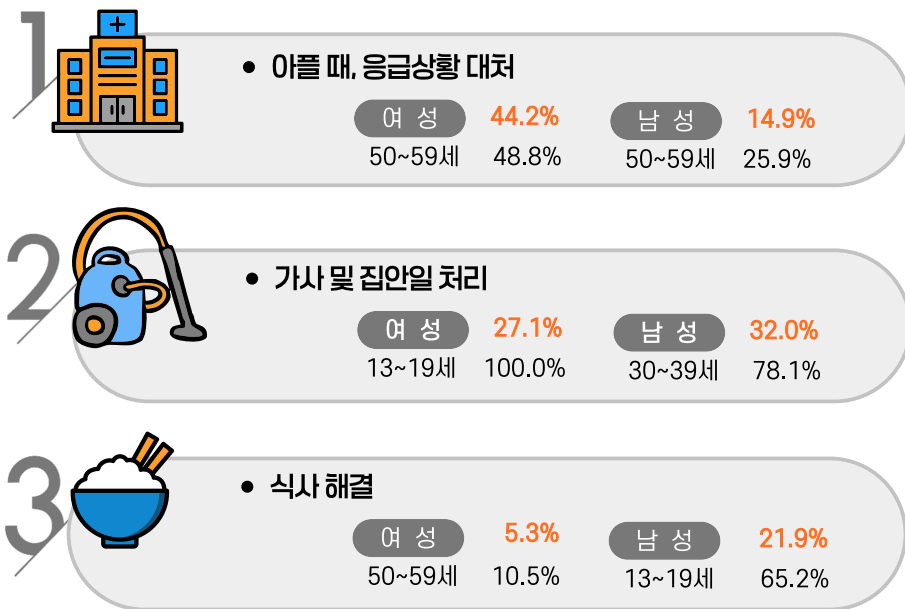
서구 1인 가구로 생활하는 이유(2024)

단위 : %



자료 : 인천광역시, 사회조사 원자료 분석

서구 1인 가구로 가장 불편한 점(2024)



자료 : 인천광역시, 사회조사 원자료 분석(응답률이 높은 3순위)
주 : '불편한 점이 없음' 제외

■ 서구의 1인 가구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2024년 일반가구 중 1인 가구는 28.4%이며, 1인 가구 중 고령가구의 비율은 22.1%임

- 서구의 1인 가구는 2015년 19.6%에서 매년 증가하여 2024년에는 10가구 중 약 3가구에 해당하는 28.4%까지 증가함.
- 그러나 인천시 평균 32.5%를 밑돌뿐만 아니라 10개 군구 중에서는 연수구에 이어 2번째로 1인 가구 비율이 낮음
- 1인 가구 중 고령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2.1%로 전체 1인 가구 비율보다 낮음. 고령 1인 가구 비율 또한 인천시 평균 27.3%보다 낮고 중구(18.9%)에 이어 2번째로 낮은 수준임

■ 2024년 서구 1인 가구 중 30~39세(21.5%)의 비중이 가장 높고, 각 연령대별 여성비율은 70세 이상(70.9%)에서 두드러짐

- 2024년 서구 1인 가구의 비중을 살펴보면, '30~39세'가 21.5%로 가장 높고, 50대와 60대(각각 17.8%), 40대(15.9%), 70세 이상(13.8%), 29세 이하(13.2%) 순으로 구성비를 보임
- 서구 1인 가구 중 여성비율은 45.5%이며, 각 연령대별 여성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은 70세 이상으로 70.9%에 달함
- 60대 또한 여성 1인 가구가 남성보다 많으나, 60대 이하 연령구간에서는 남성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음. 특히, 40대 1인 가구의 여성비율은 32.9%로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연령대임

■ 2024년 기준 '본인의 학업/직장'으로 인해 (여성 25.6%, 남성 39.2%) 1인 가구로 생활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 2024년 사회조사에 참여한 서구민 중 1인 가구로 생활하는 이유와 관련하여 여성의 25.6%와 남성 39.2%는 '본인의 학업/직장' 때문에 1인 가구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외에도 여성은 '함께 있던 가족의 사망', '혼자가 편해서', '가족으로부터 독립을 원해서'의 비율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음

■ 1인 가구 여성의 가장 불편한 점은 '아플 때, 응급상황 대처'인 것으로 드러남

- 2024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서구의 1인 가구는 '아플 때, 응급상황 대처', '가사 및 집안일 처리', '식사 해결' 순으로 불편하다고 여김
- 그러나 성별간 불편한 점은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남. 여성 1인 가구는 '아플 때, 응급상황 대처'(44.2%)를 꼽은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남성은 14.9%에 불과함. 대신 남성 1인 가구는 '가사 및 집안일 처리'(32.0%)를 가장 불편해 하는 것으로 드러남
- '식사 해결' 또한 여성은 5.3%에 불과하였으나, 남성 응답률은 21.9%로 약 4배 정도 격차가 남

[2-12 1인 가구]
[2-13 고령 1인 가구]
[2-14 연령별 1인 가구]
[2-17 1인 가구 거주기간 및 이유]
[2-18 1인 가구로 가장 불편한 점]
[12-12 군구별 1인 가구]
[12-13 군구별 고령 1인 가구]

서구의 경제활동과 비경제활동

서구/인천/전국 고용률(2024)



서구

여성 53.2%
남성 75.2%

인천

여성 54.8%
남성 71.8%

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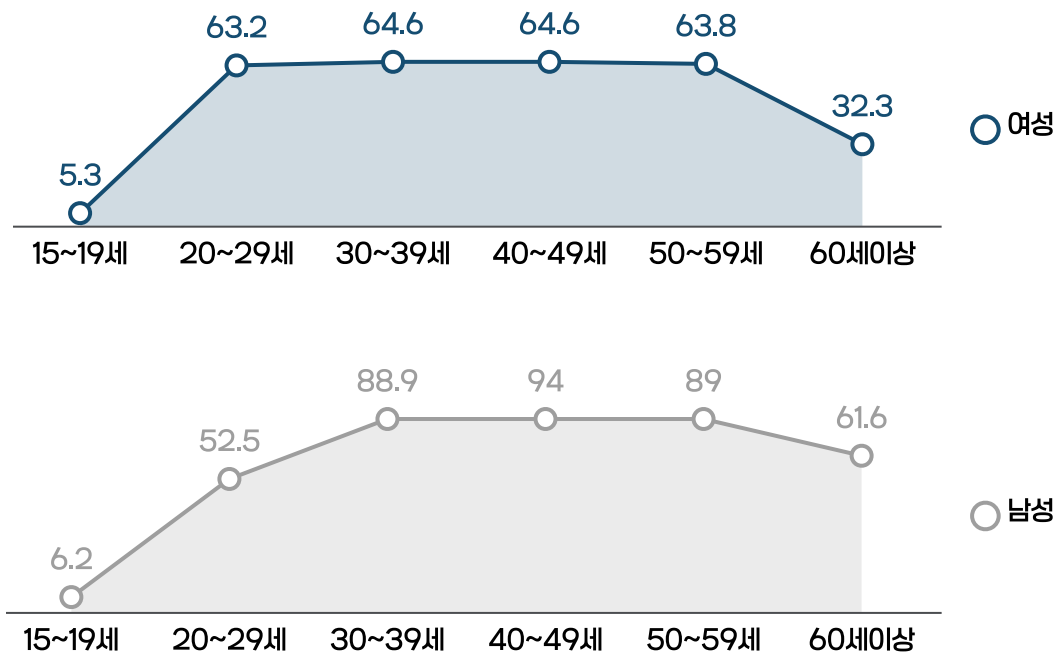
여성 55.1%
남성 71.1%

자료 : 국가데이터처,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분석 (1분기, 4월 15일 기준)

주 : 고용률=(취업자/15세이상 인구)×100

서구 연령별 고용률(2024)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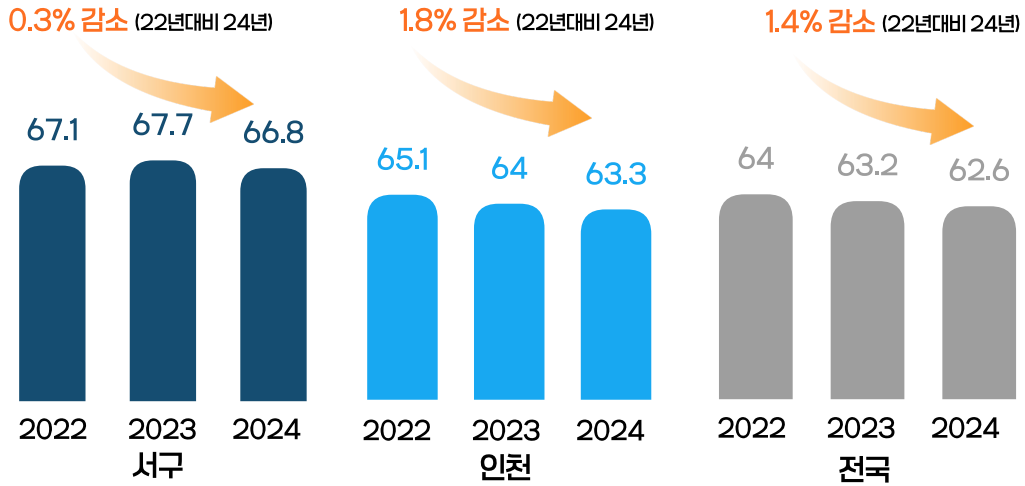
자료 : 국가데이터처,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분석 (1분기, 4월 15일 기준)

주 : 고용률=(취업자/15세이상 인구)×100

2. 경제활동과 노동환경

비경제활동인구 여성비율(2022~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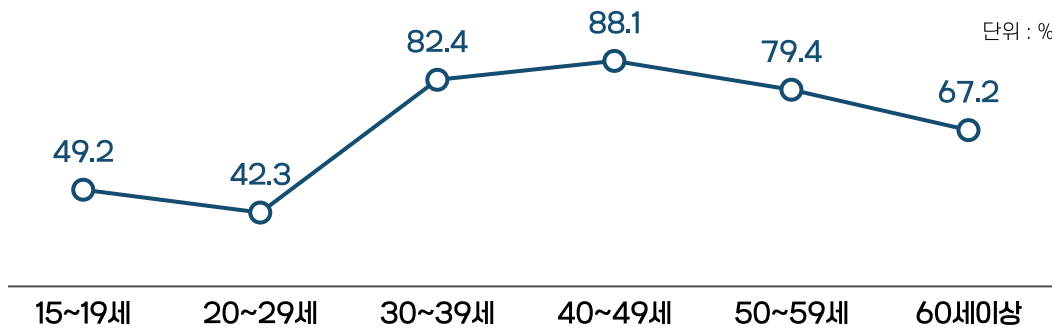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국가데이터처,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분석(1분기, 4월 15일 기준)

서구 연령별 비경제활동인구 여성비율(2024)

단위 : %



자료 : 국가데이터처,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분석(1분기, 4월 15일 기준)

서구의 경제활동과 비경제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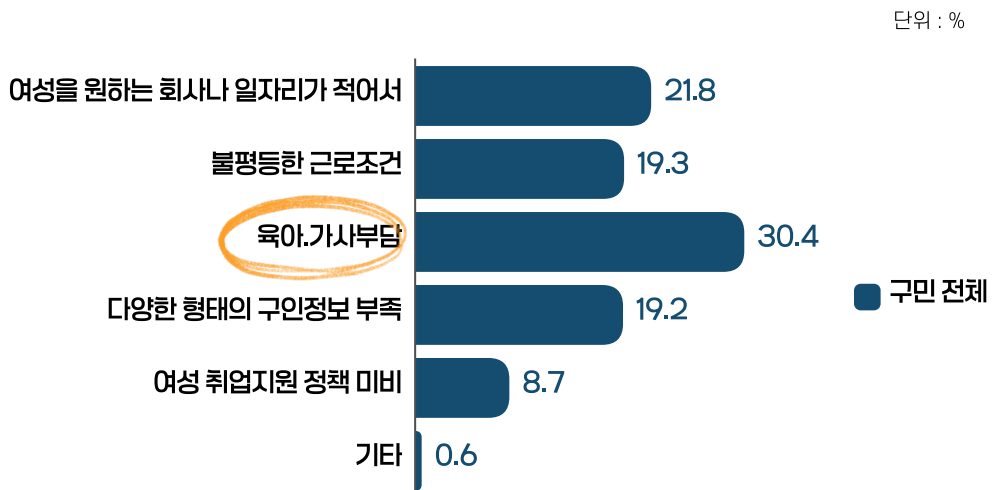
서구 비경제활동인구의 활동 상태(2024)



- "육아"로 인한 비경제활동인구 여성 100% 중
30대 61.1%, 40대 36.0%, 50대 1.3%, 60대 이상 1.6%

자료 : 국가데이터처,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분석(1분기, 4월 15일 기준)

서구 여성취업 장애요인(2023)



자료 : 인천광역시, 사회조사 / 인천의 사회지표_서구

2. 경제활동과 노동환경

2024년 서구 여성고용률은 53.2%로 남성분만 아니라 전국 및 인천 평균보다도 낮음

- 2024년 서구 여성의 고용률은 53.2%로 남성 75.2%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인천 여성 평균 54.8%와 전국 여성 평균 55.1%를 밑도는 수준임
- 20대 여성 고용률은 63.2%, 30대 64.6%, 40대 64.6%, 50대 63.8%로 60%대를 유지하나 60세 이상에는 32.3%로 급감함
- 반면, 남성의 고용률은 30대 88.9%, 40대 94.0%, 50대 89.0%로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며, 60세 이상에서도 61.6%로 여성고용률의 약 2배에 달함

2024년 서구의 비경제활동인구 여성비율은 66.8%로 인천과 전국에 비해 높으며, 특히 40대 비경제활동 여성비율은 88.1%에 달함

- 서구의 비경제활동인구 여성비율은 2022년 67.1%, 2023년 67.7%, 2024년 66.8%이며, 2022년 대비 2024년 약 0.3% 감소함
- 2024년 기준 비경제활동 여성비율은 인천(63.3%)과 전국(62.6%)보다 높은 수준이며 2022년 대비 2024년 감소폭 또한 인천(1.8%)과 전국(1.4%)에 비해 낮음
- 2024년 서구 연령별 비경제활동인구 여성비율을 보면, 40대가 88.1%로 가장 높고 30대 82.4%, 50대 79.4%, 60세 이상 67.2% 순으로 이어짐

2024년 '육아'로 인한 비경제활동인구의 여성비율은 100.0%, '가사'는 97.5%임

- 2024년 비경제활동인구의 활동상태를 성별로 구분해 보면, '육아'로 인해 현재 비경제활동 상태인 인구 모두 여성이었으며, 이 중 30대는 61.1%, 40대는 36.0%, 50대 1.3%, 60대 이상 1.6%임
- 유사하게, '가사'로 인한 비경제활동인구의 여성 비율은 97.5%였으며 남성은 2.5%에 불과함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서구민은 '육아, 가사 부담'을 여성취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음

- 2023년 사회조사에서 응답자의 10명 중 약 3명(30.4%)은 서구 여성취업의 장애요인으로 '육아, 가사 부담'을 선택함
- 이어 '여성을 원하는 회사나 일자리가 적어서'(21.8%), '불평등한 근로조건'(19.3%), '다양한 형태의 구인정보 부족'(19.2%), '여성취업지원 정책 미지'(8.7%)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음

[5-1 경제활동인구 총괄]

[5-5 연령별 고용률]

[5-13 연령별 비경제활동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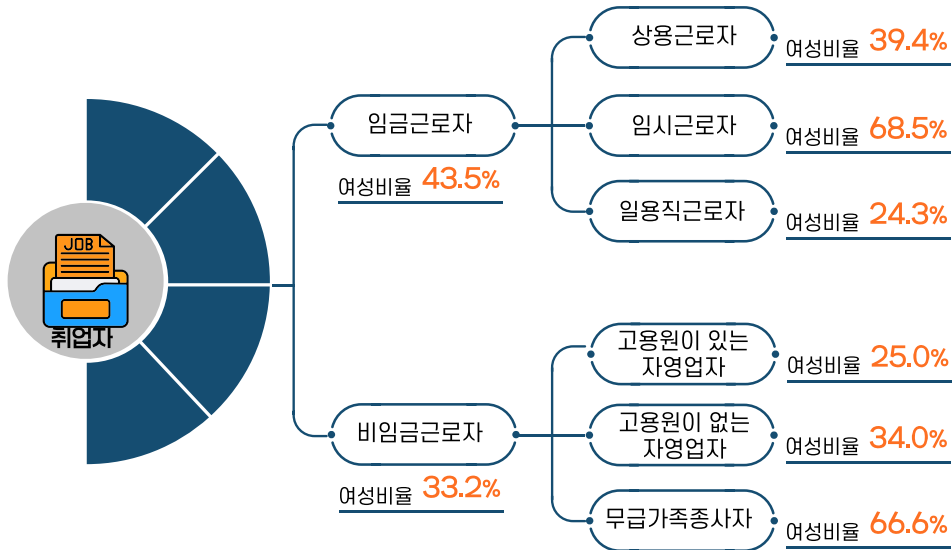
[5-16 비경제활동인구의 활동 상태]

[5-17 연령별 비경제활동인구의 활동 상태]

[5-38 여성취업 장애요인]

서구의 노동환경

서구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여성비율(2024)



단위 :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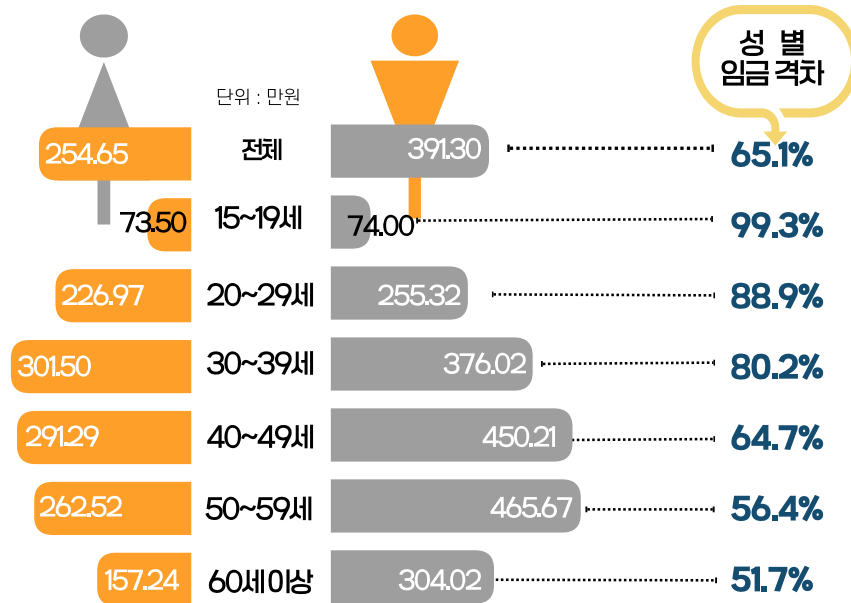
구분	취업자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합계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직근로자	합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전체	346	274	214	46	14	72	25	42	5
여성	143	119	84	31	4	24	6	14	4
남성	203	155	130	14	11	48	19	28	2

자료 : 국가데이터처,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분석(1분기, 4월 15일 기준)

주 : 단위 변환(명→천명)에 따른 반올림으로 합계가 맞지 않을 수 있으며 여성비율은 명 단위에서 계산함

2. 경제활동과 노동환경

서구 임금근로자의 성별 임금 격차(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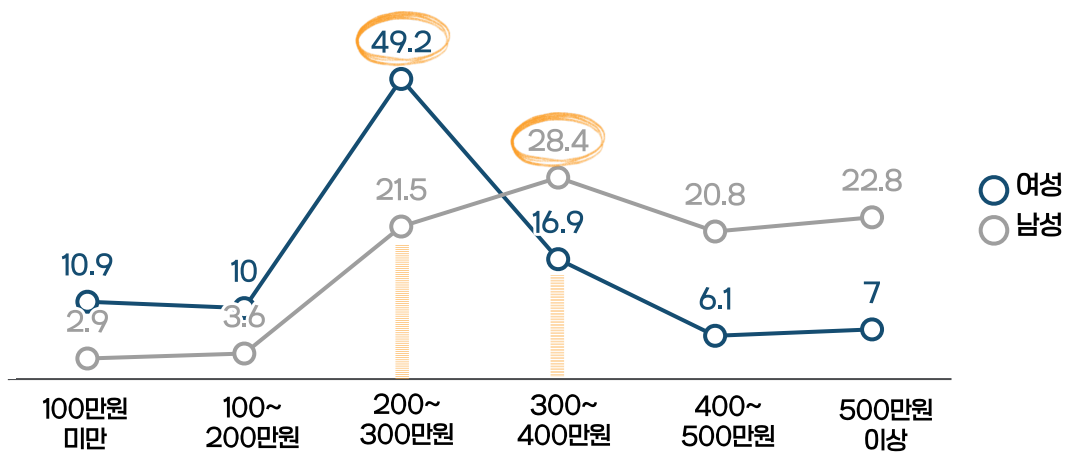
자료 : 국가데이터처,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분석(1분기, 4월 15일 기준)

주 : 1) 조사시점 최근 3개월간 평균임금임

2) 성별임금 격차 = (여성임금/남성임금)×100, 남성임금 100을 기준으로 할때 여성임금의 비율을 의미

서구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구성비(2024)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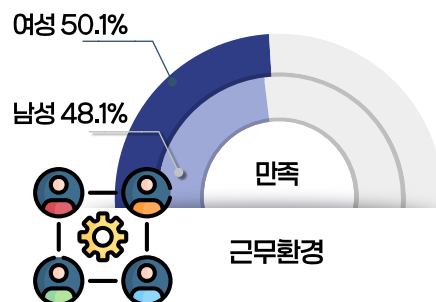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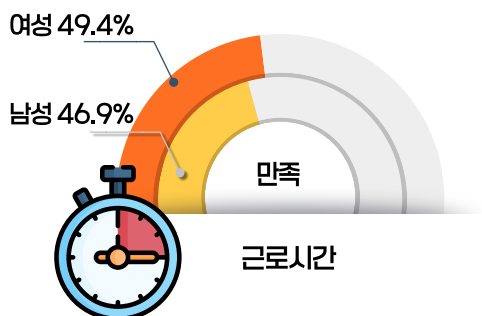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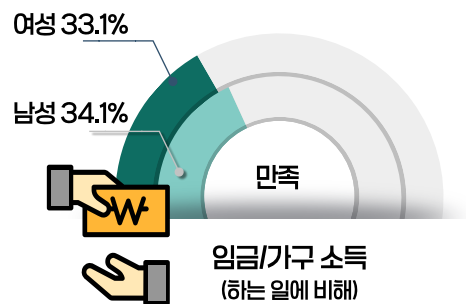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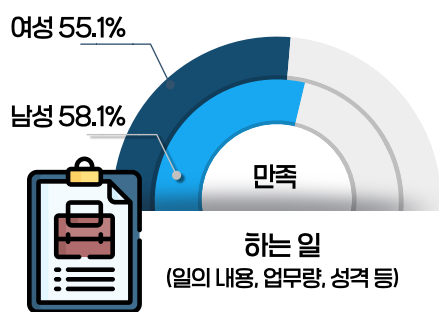


자료 : 국가데이터처,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분석(1분기, 4월 15일 기준)

주 : 조사시점 최근 3개월간 평균임금임

서구의 노동환경

서구 일자리 만족도(2024)



자료 : 인천시 사회조사 / 인천시 인천의 사회지표_서구

주 :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주일동안 일을 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대상임

2. 경제활동과 노동환경

■ 2024년 상용근로자 여성비율은 43.5%이며, 임시근로자 여성비율은 68.5%, 무급가족종사자의 여성비율은 66.6%에 달함

- 2024년 서구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의 여성비율은 43.5%, 비임금근로자의 여성비율은 33.2%로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더 높음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의 여성비율은 10명 중 약 4명에 해당되는 39.4%임. 임시근로자의 여성비율은 높은 반면(68.5%), 일용직근로자의 비율은 24.3%로 낮음
-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25.0%,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34.0%는 여성인 반면, 무급가족종사자의 여성비율은 66.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24년 서구 여성임금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254.65만원으로 남성의 65.1% 수준에 그침

- 2024년 서구 여성임금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남성 391.30만원의 65.1%에 불과한 254.65만원임
- 여성 30대의 평균 임금이 301.5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남성은 50대의 평균임금이 465.67만원으로 다른 연령에 비해 높았음
-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연령은 60대임. 60대 여성의 평균 임금은 같은 연령대 남성의 51.7% 수준에 그침
- 성별간 월평균 임금 구성비를 보면, 여성은 200~300만원에 해당되는 비율이 49.2%로 가장 많았으며, 남성은 300~400만원대(28.4%)인 것으로 조사됨

■ 2024년 여성은 '일의 내용, 업무량, 성격 등' 하는 일'과 '하는 일에 비해'임금/가구 소득'에 대한 일자리 만족도가 남성보다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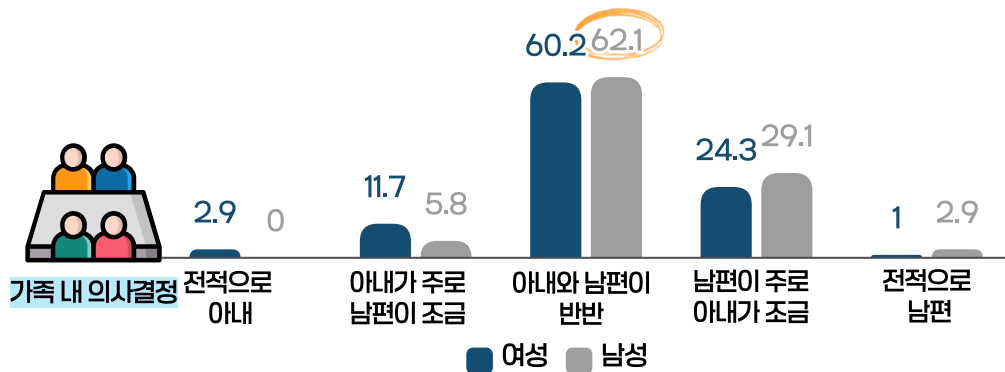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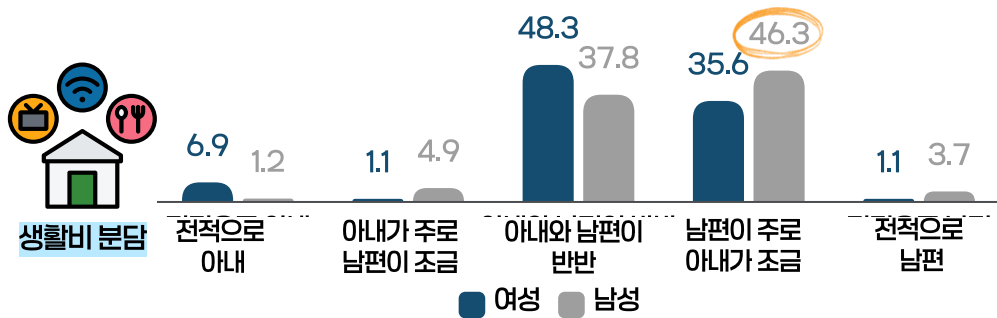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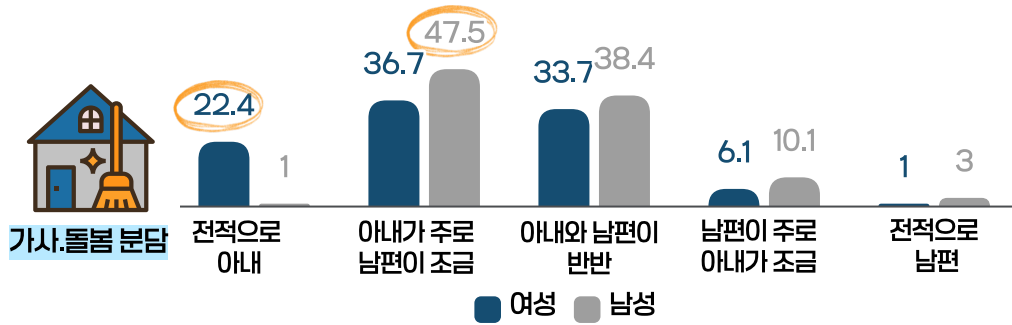
- 2024년 서구 여성과 남성 모두 '일의 내용, 업무량, 성격 등'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남성(58.1%)의 응답률이 여성(58.1%)보다 높았음
- '근로시간'에 대한 여성 만족도는 49.4%, 남성은 46.9%였으며, '근무환경'도 남성(48.1%)보다 여성(50.1%)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 반면, '하는 일에 비해' 임금/가구 소득'과 관련해서는 여성(33.1%)의 만족도가 남성(34.1%)보다 다소 낮았음

[5-28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5-29 임금근로자의 성별 임금 격차]
[5-30 일자리 만족도]
[11-6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서구의 일-가정 양립

서구 가사 및 돌봄분담(2022)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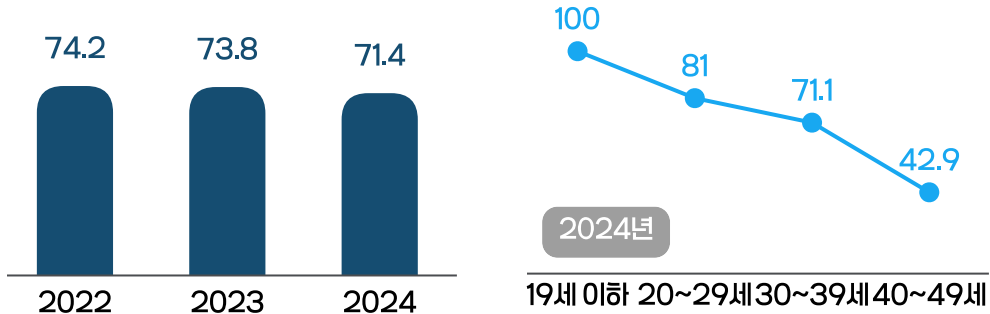


자료 : 인천여성가족재단, 2022 인천광역시 양성평등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주 : 생활비 분담 - '해당없음' 여성 6.9%, 남성 6.1%

3. 일-가정 양립과 돌봄

서구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여성비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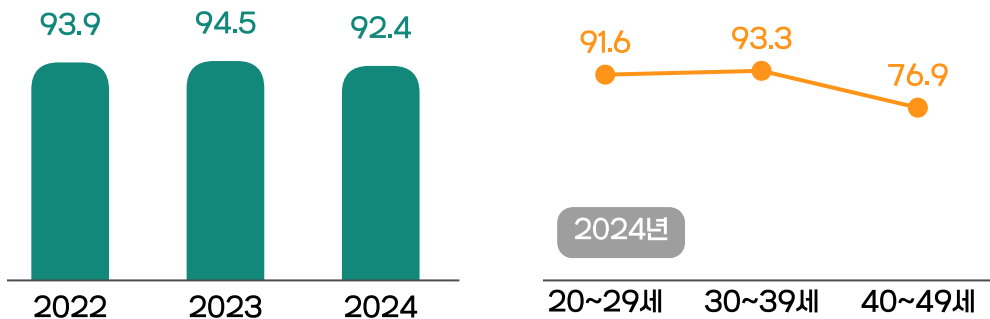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수급자 성별 추이			연령별 수급자(2024)			
	2022	2023	2024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전체	1,811	2,028	2,209	1	401	1,688	119
여성	1,343	1,497	1,578	1	325	1,201	51
남성	468	531	631	0	76	487	68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서구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급여 수급자 여성비율

단위 : %



단위 : 명

구분	수급자 성별 추이			연령별 수급자(2024)		
	2022	2023	2024	20~29세	30~39세	40~49세
전체	309	382	487	131	343	13
여성	290	361	450	120	320	10
남성	19	21	37	11	23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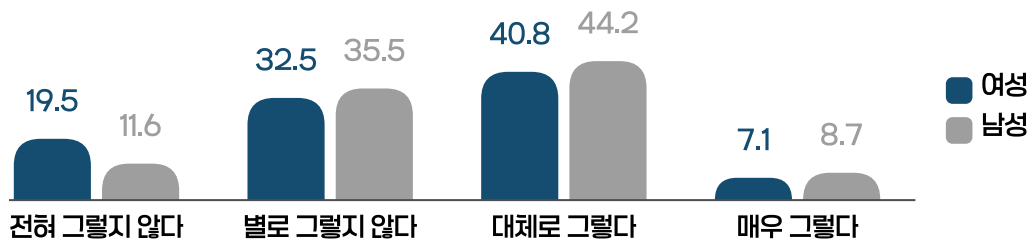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서구의 일-가정 양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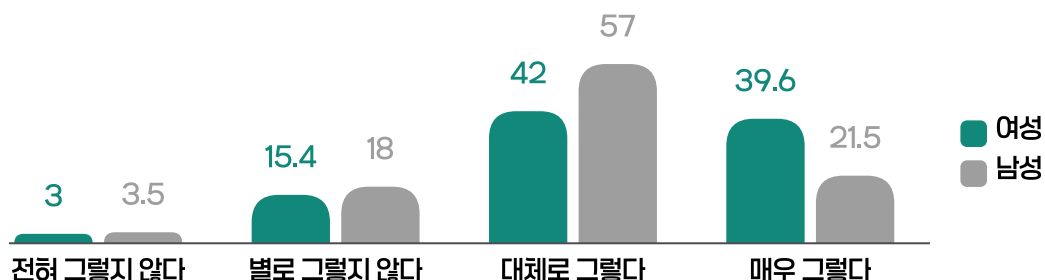
서구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인식(2022)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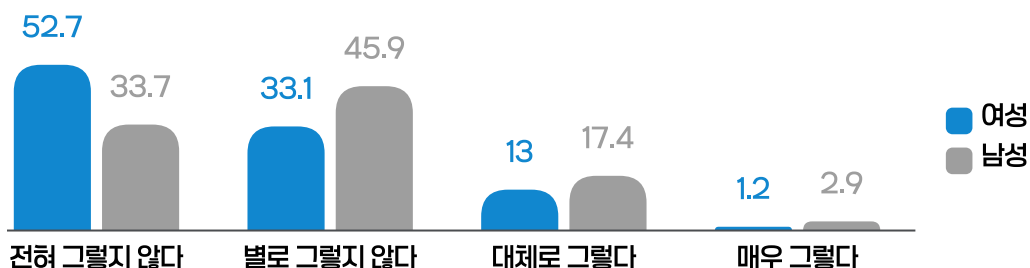
» 엄마는 자녀가 어릴 때는 직장을 다니지 않는 것이 좋다



» 남성은 혼자서 아이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



» 직원을 줄일 때에는 남성보다 여성을 먼저 해고해야 한다



자료 : 인천여성가족재단, 2022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3. 일-가정 양립과 돌봄

2022년 조사에서 '가사, 돌봄 부담'와 관련하여, 남성은 '아내가 주로 남편이 조금', 여성은 '전적으로 아내'를 꼽은 비율이 높았음

- 2022년 인천시 양성평등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족 내 의사결정' > '생활비 부담' > '가사, 돌봄 부담' 순으로 부부 간 부담이 평등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남
- '가사, 돌봄부담'과 관련하여 남성(47.5%)은 '아내가 주로 남편이 조금'이라는 응답률이 높았음. '전적으로 아내'를 꼽은 남성 비율은 1% 인 것에 비해 여성응답률은 22.4%나 됨
- '생활비 부담'은 남성의 경우 '남편이 주로 아내가 조금'(남성 46.3%)을, 여성은 '아내와 남편이 반반'(여성 48.3%)의 응답률이 높았으며, '가족 내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여성과 남성 각각 10명 중 약 6명은 '아내와 남편이 반반'이라고 응답함

서구 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급여수급자의 여성비율이 남성보다 현저히 높음

- 서구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여성비율은 2022년 74.2%, 2023년 73.8%, 2024년 71.4%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여전히 남성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2024년 기준 20대 급여 수급자의 여성비율은 81.0%이며 30대는 71.1%, 40대는 42.9%였음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와 관련하여 2022년 여성수급자는 93.9%였으며 2023년은 94.5%, 2024년 92.4%로 지난 3년간 수급자 10명 중 약 9명은 여성이었음
- 2024년 기준 20대 수급자의 91.6%, 30대의 93.3%, 40대 76.9%는 여성인 것으로 확인됨

일-가정 양립에 대한 서구민의 성별 간 인식 차이가 드러남

- 2022년 인천시 양성평등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일-가정 양립에 대한 서구민의 성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음
- '엄마는 자녀가 어릴 때는 직장을 다니지 않는 것이 좋다'에 대해 여성의 47.9%(대체로 그렇다 40.8%, 매우 그렇다 7.1%)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남성의 52.9%(대체로 그렇다 44.2%, 매우 그렇다 8.7%)가 긍정적으로 응답함
- '남성은 혼자서 아이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와 관련하여 여성의 81.6%(대체로 그렇다 42.0%, 매우 그렇다 39.6%)가 동의한 것에 비해 남성은 78.5%(대체로 그렇다 57.0%, 매우 그렇다 21.5%)가 '그렇다'를 선택함. 특히 '매우 그렇다'라는 강한 긍정의 여성응답률은 39.6%로 남성응답률(21.5%)보다 18.1% 높음
- '직원을 줄일 때에는 남성보다 여성을 먼저 해고해야 한다'에 대해 여성의 85.8%가 '그렇지 않다'고 답변한 반면, 남성은 79.6%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이 또한 '전혀 그렇지 않다'는 여성 비율은 52.7%로 남성(33.7%)보다 19% 높음

[5-31 연령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5-34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수급자]

[11-17 가사 및 돌봄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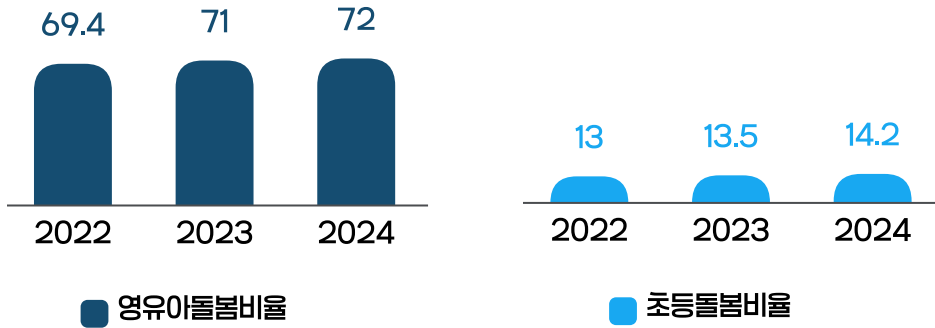
[11-21 성별고정관념]

[11-22 변화하는 성역할과 지위에 대한 태도]

서구 지역 내 아동돌봄

서구 영유아돌봄 및 초등돌봄 현황(2022~2024)

단위 : %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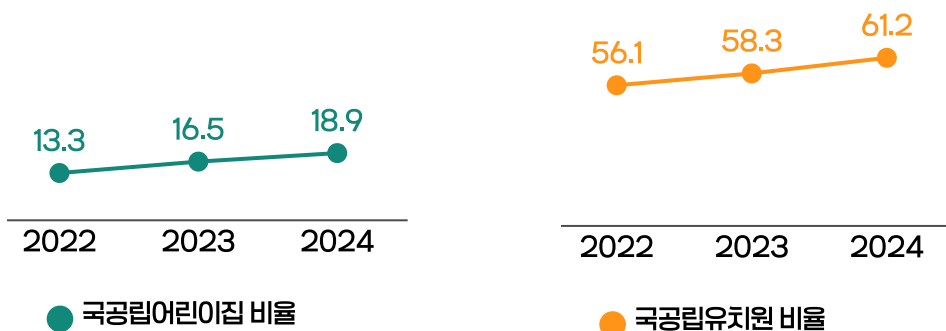
구분	영유아돌봄				초등돌봄				
	0~6세 아동	합계	어린이집 이용아동	유치원 이용아동	초등학생	합계	초등돌봄 교실 참여학생	지역아동 센터 참여학생	다함께 돌봄센터 참여학생
2022	33,392	23,169	14,546	8,623	34,916	4,531	3,654	786	91
2023	34,760	24,675	15,475	9,200	37,228	5,016	4,136	747	133
2024	33,931	24,424	14,929	9,495	37,878	5,361	4,350	791	220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보육정보공개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교육통계연보 /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자료 / 서구청 행정자료

- 주 : 1) 영유아돌봄비율=(어린이집 이용 원아 수+유치원 이용 원아 수)/주민등록인구 만0~6세×100
 2) 초등돌봄비율=(초등돌봄교실 참여학생 수+지역아동센터 참여학생 수+다함께돌봄센터 참여학생 수)/초등학생수×100
 3) 초등학생 수 4월1일 기준, 초등돌봄 참여학생 수 22년 4월 30일 기준, 23년 3월 3일 기준, 24년 3월 4일 기준
 4) 자료 출처 및 산식은 여성친화도시 지정 계획 작성 기준임

서구 국공립어린이집/국공립유치원 비율(2022~2024)

단위 : %



자료 :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보육정보공개 /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교육통계연보

- 주 : 1) 국공립어린이집 비율=(국공립어린이집 수/전체 어린이집 수)×100
 2) 국공립유치원 비율=(국공립유치원 수/전체 유치원 수)×100

3. 일-가정 양립과 돌봄

■ 2024년 서구 영유아돌봄 비율은 72%로 높은 반면, 초등돌봄 비율은 14.2%에 불과함

- 0~6세 아동 중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을 나타내는 서구의 영유아돌봄 비율은 2024년 72.0%임. 2022년 69.4%, 2023년 71%로 지난 3년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이에 비해 초등돌봄비율은 낮은 것으로 확인됨.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돌봄의 사회화를 실현하기 위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공적돌봄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가 가장 대표적임. 전체 초등학생 대비 상기 3개의 돌봄 서비스에 참여하는 학생의 비율은 2022년 13.0%, 2023년 13.5%, 2024년 14.2%에 불과함

■ 2024년 서구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은 18.9%, 국공립 유치원 비율은 61.2%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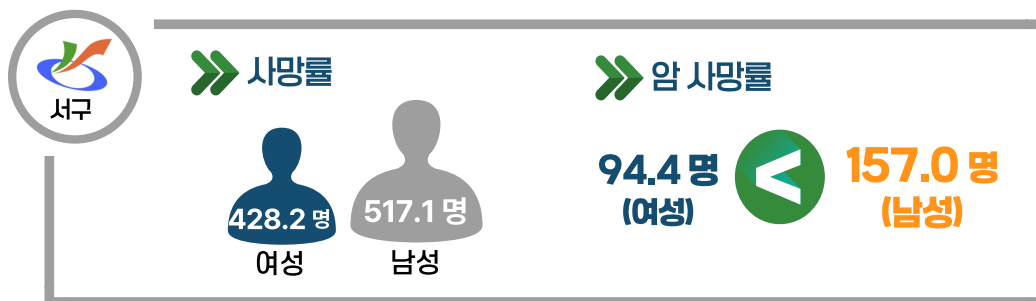
- 서구 전체 어린이집 중 국공립 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2년 13.3%, 2023년 16.5%, 2024년 18.9%로 점차 확대됨
- 국공립유치원 비율 또한 같은 기간 56.1%, 58.3%, 61.2%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3-8 시설유형별 어린이집]
[3-17 유치원 현황]
[11-18 영유아 돌봄 현황]
[11-19 초등 돌봄 현황]

서구의 사망과 건강관리

서구 사망률 및 신생물(암)으로 인한 사망률(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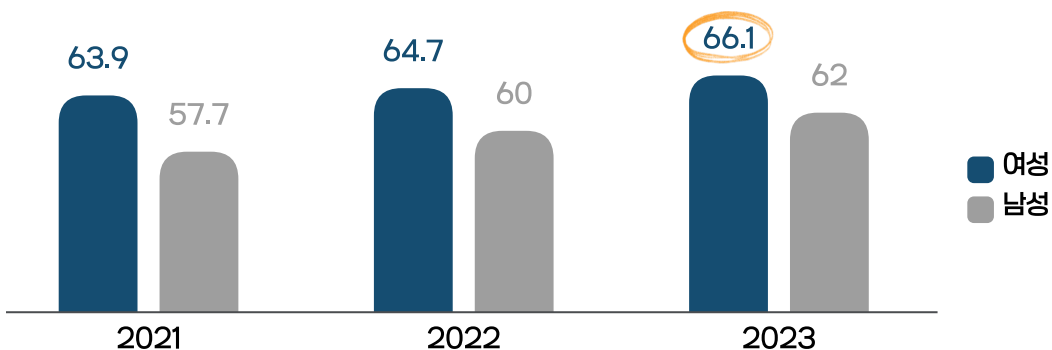
단위 : 십만명당 명



자료 : 국가데이터처, 사망원인통계

서구 암 검진 수검율(2021~2023)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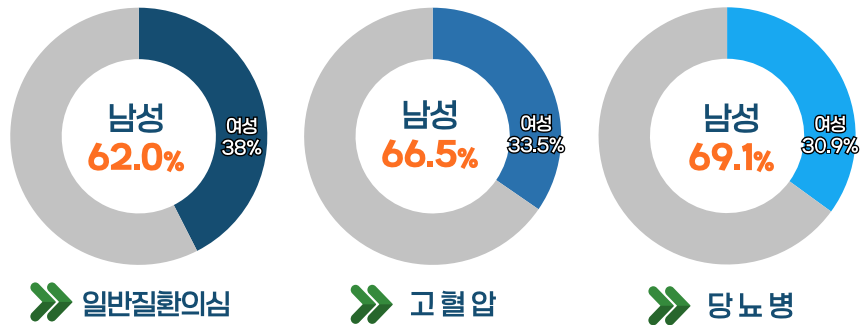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대상인원			수검인원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2021	239,671	136,665	103,006	146,780	87,326	59,454
2022	239,414	135,867	103,547	149,991	87,895	62,096
2023	252,249	143,393	108,856	162,259	94,732	67,527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

주 : 주민등록주소지 기준 / 연도말 자격 기준

서구 일반건강검진 결과 질환의심자(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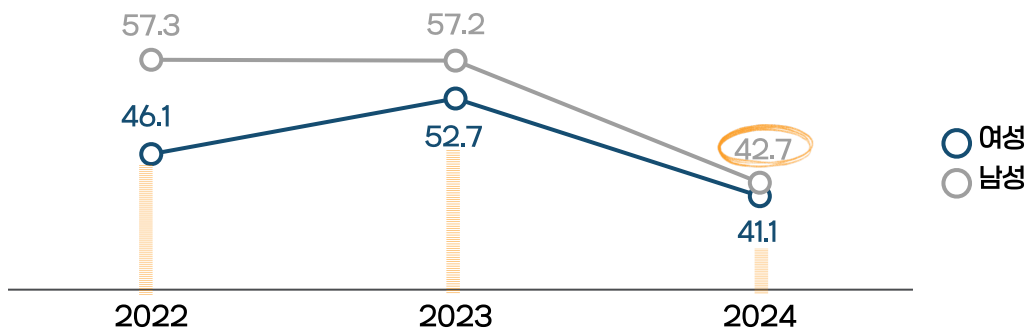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일반질환의심			고혈압			당뇨병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2023	92,173	35,068	57,105	18,193	6,099	12,094	7,849	2,425	5,424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
주 : 주민등록주소지 기준 / 연도말 자격 기준

서구 주관적인 건강수준 인지율(2022~2024)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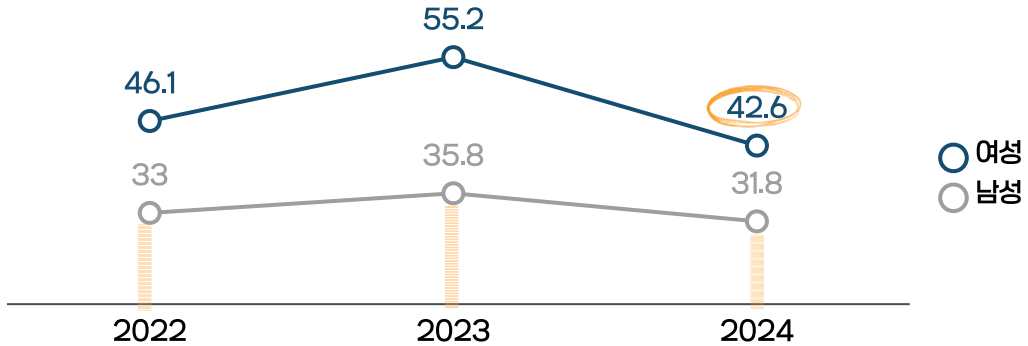
구분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2024	45.9	65.9	48.2	47.2	48.9	37.4	43.6	45.9	29.0	26.1	18.2	24.9

자료 : 서구보건소, 지역사회 건강통계
주 : 주관적 건강인지율=(주관적 건강수준을 "매우 좋음" 또는 "좋음"에 응답한 사람의 수/조사대상 응답자 수)×100

서구의 사망과 건강관리

서구 건강생활 실천율(2022~2024)

단위 :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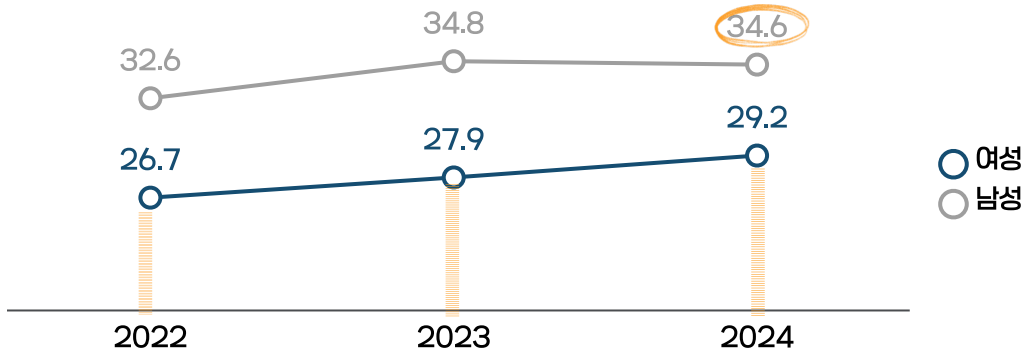
구분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2024	34.3	32.5	39.3	33.8	36.4	24.6	45.8	29.7	56.4	36.3	46.3	41.3

자료 : 서구보건소, 지역사회 건강통계

주 : 건강생활실천율=(현재 금연, 절주, 걷기를 모두 실천하는 사람의 수/조사대상 응답자 수)×100

서구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2022~2024)

단위 : %



단위 : %

구분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2024	14.8	42.9	26.9	35.7	32.6	29.4	33.7	38.9	37.8	26.9	25.5	33.1

자료 : 서구보건소, 지역사회 건강통계

주 :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최근 1주일 동안 격렬한 신체활동을 1일 20분 이상 주3일 이상 실천한 사람의 수 또는 1주일 동안 중등도 신체활동을 1일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 사람의 수/조사대상 응답자 수)×100

2023년 서구의 사망률과 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으나, 암 검진 수검률은 남성이 더 낮음

- 2023년 기준 서구 여성인구 십만명당 사망자는 428.2명, 남성은 517.1명으로 남성의 사망률이 더 높음
- 사망원인 중 암으로 인한 사망률도 이와 유사한 양상을 보임. 남성의 암 사망률은 157.0명으로 여성(94.4명)보다 약 60% 가량 남성이 높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의 암 검진 수검률은 남성이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됨. 2023년 여성은 66.1%인데 비해 남성은 62.0%임. 그러나 긍정적인 현상은 지난 3년간(2022~2024년) 수검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임
- 남성의 암 검진 수검률은 2021년 대비 2023년 4.3% 증가하였으며, 여성 또한 지난 3년간 점진적으로 늘어남

2023년 서구 일반건강검진 결과, 남성의 유병의심자가 여성보다 더 많았으나 주관적인 건강수준인지를 관련해서는 오히려 남성이 더 긍정적임

- 사망률뿐만 아니라 일반건강검진 결과 질환의심자도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2023년 검진 결과, 일반질환의심자의 남성비율은 62.0%였으며 고혈압은 66.5%, 당뇨병은 69.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 그러나 2024년 기준 주관적인 건강인지를(건강수준이 '매우 좋음'+ '좋음'에 응답한 비율)은 남성 42.7%로 여성(41.1%)보다 더 긍정적으로 인지함
- 이러한 현상은 3년간(2022~2024년) 지속되었으나 최근에 와서는 남성의 건강수준 인지율도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남

2024년 서구의 건강생활 실천율은 여성이 더 높은 반면,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남성이 더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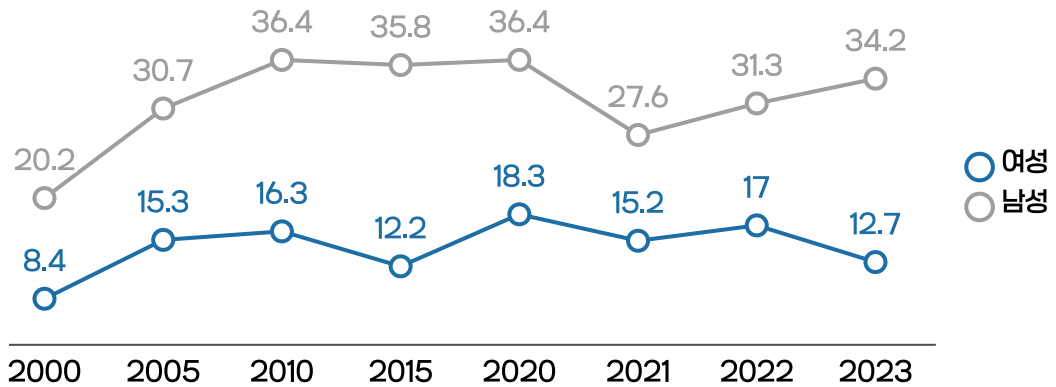
- 2024년 금연, 절주, 걷기를 모두 실천하는 건강생활 실천율은 여성 42.6%, 남성 31.8%였으며, 남성에 비해 높은 여성의 건강생활 실천율은 3년간 지속됨. 또한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의 비율이 더 높았는데, 특히 성별 간 실천율 격차가 가장 큰 연령대는 20.1% 격차를 보인 60대인 것으로 드러남(여성 56.4%, 남성 36.3%)
- 반면,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2024년 남성 34.6%, 여성 29.2%로 남성이 더 앞서는 것으로 확인됨. 남성은 2022년 32.6%, 2023년 34.8%, 2024년 34.6%로 30%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비해 여성은 3년간 20%대에 머물러 있음. 그러나 여성의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도 같은 기간 26.7%, 27.9%, 29.2%로 증가세에 있으며 40대와 60대 여성은 남성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6-2 사망원인별 사망률]
[6-17 주관적인 건강수준 인지율]
[6-23 암 검진 수검 현황]
[6-25 일반건강검진 결과 질환의심자 현황]
[6-28 건강생활 실천율]
[6-30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서구의 자살과 정신건강

서구 자살률 추이(2000~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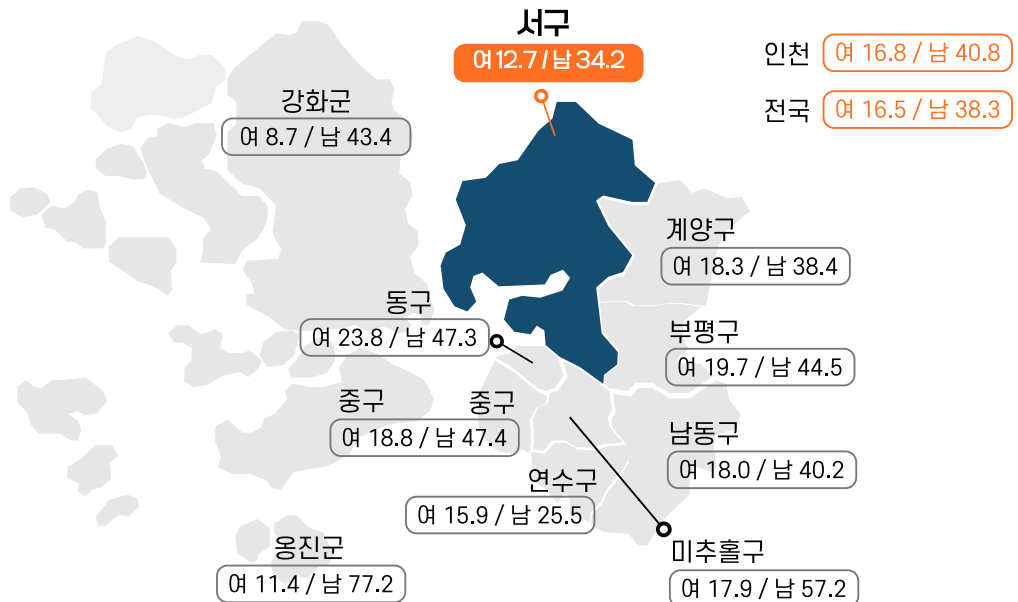
단위 : 십만명당 명



자료 : 국가데이터처, 사망원인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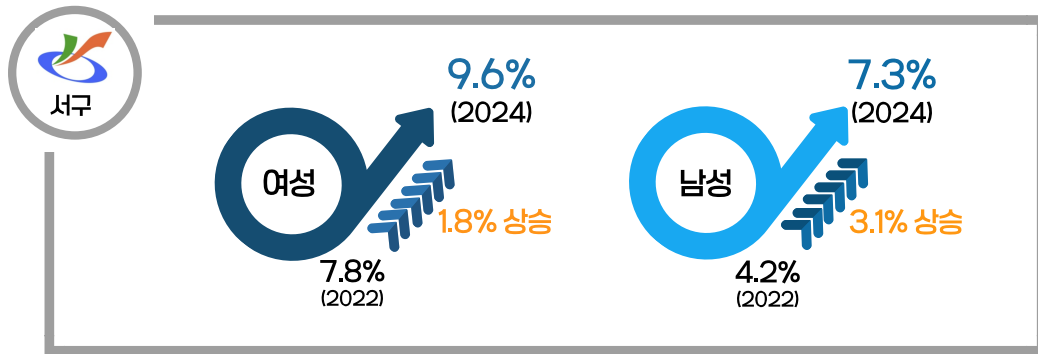
군구별 자살률(2023)

단위 : 십만명당 명



자료 : 국가데이터처, 사망원인통계

서구 자살생각률(2022/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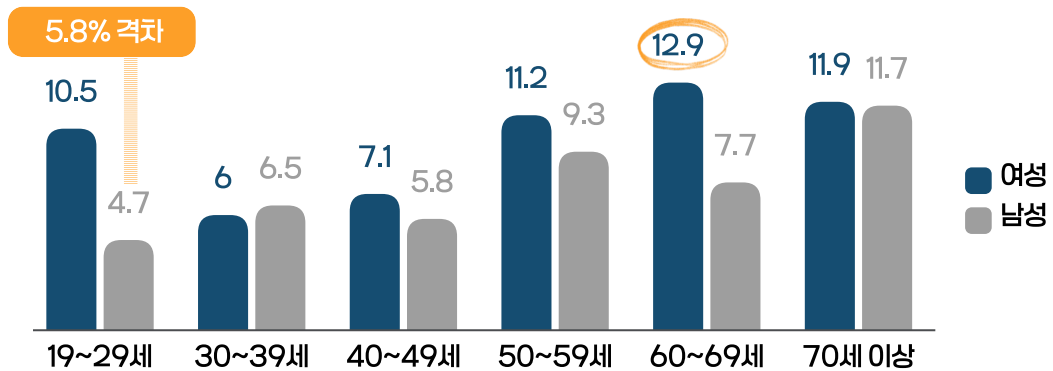


자료 : 서구보건소, 지역사회 건강통계

주 : 자살생각률=(최근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의 수/조사대상 응답자 수)×100

서구 연령별 자살생각률(2024)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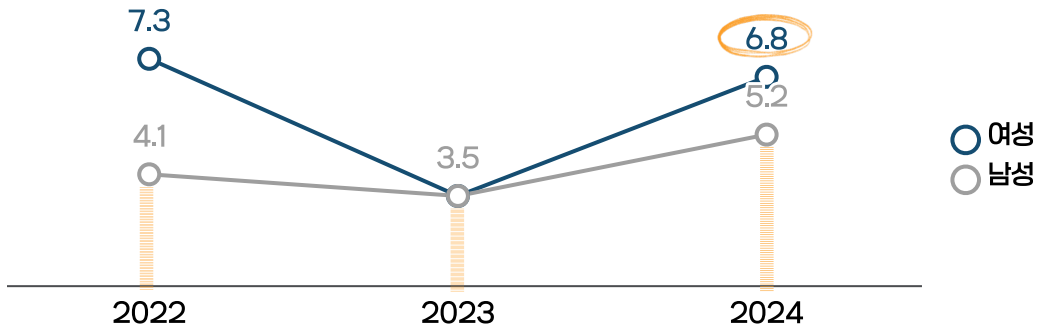
자료 : 서구보건소, 지역사회 건강통계

주 : 자살생각률=(최근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의 수/조사대상 응답자 수)×100

서구의 자살과 정신건강

서구 우울감 경험률(2022~2024)

단위 :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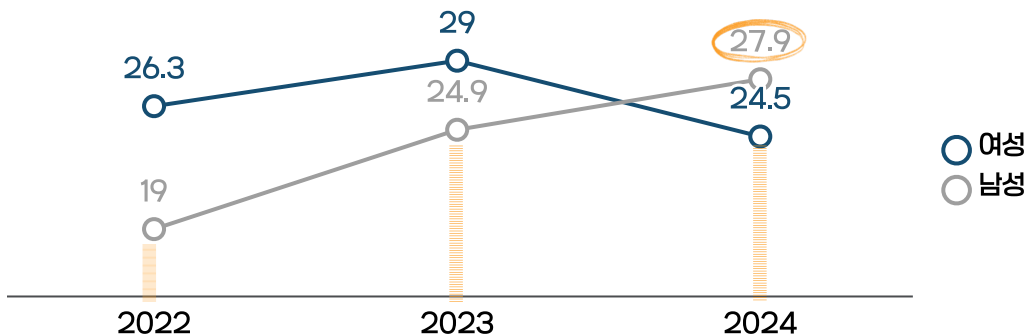
구분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2024	3.3	0.0	2.8	5.3	5.4	5.9	8.5	8.1	12.8	3.9	10.1	8.1

자료 : 서구보건소, 지역사회 건강통계

주 : 우울감 경험률=(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슬픔이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는 사람의 수/조사대상 응답자 수)×100

서구 스트레스 인지율(2022~2024)

단위 : %



단위 : %

구분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2024	24.8	28.3	32.4	25.1	25.4	36.9	21.3	30.9	23.6	18.9	15.5	19.0

자료 : 서구보건소, 지역사회 건강통계

주 : 스트레스 인지율=(평소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느낀다" 또는 "많이 느끼는 편이다"에 응답한 사람의 수 / 조사대상 응답자 수)×100

2023년 서구 남성 자살률은 여성보다 높음 그러나 여성과 남성 자살률은 전국, 인천 평균 에 밀도는 수준임

- 2023년 서구 여성 인구 십만명당 자살에 의한 사망자는 12.7명인 것에 비해 남성의 자살률은 34.2명으로 남성의 자살률이 여성보다 약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상대적으로 여성보다 높은 남성 자살률 현상은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지속됨
- 그러나 2023년 서구 여성 자살률과 남성 자살률 모두 인천(여성 16.8명, 남성 40.8명)과 전국(여성 16.5명, 남성 38.3명)에는 밀도는 수준임
- 서구 남성 자살률은 연수구(25.5명)에 이어 2번째, 여성 자살률은 강화군(8.7명)에 이어 2번째로 낮은 것으로 확인됨

2024년 자살생각률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음 그러나 자살생각률(22년 대비 24년) 증가폭 은 남성이 더 큼

- 2024년 서구 여성의 자살생각률은 9.6%로 남성(7.3%)보다 더 높음. 그러나 여성 자살생각률은 2022년 7.8%에서 2024년 9.6%로 약 1.8% 증가한 반면, 남성 자살생각률은 같은 기간 4.2%에서 7.3%로 약 3.1% 증가해 여성에 비해 증가폭이 더 컸음
- 연령별로 분석해 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 자살생각률이 남성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격차가 큰 연령대는 19~29세로 5.8% 격차가 났음(여성 10.5%, 남성 4.7%)
- 성별 및 모든 연령대를 통틀어 60대 여성의 자살생각률이 12.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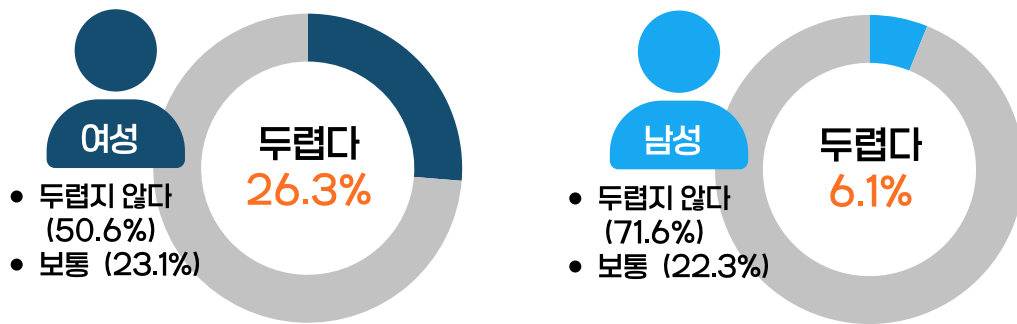
2024년 우울감 경험률은 여성이 더 높고, 스트레스 인지율은 남성보다 더 높음

- 2024년 서구 여성의 우울감 경험률은 6.8%로 남성의 5.2%보다 약 1.6% 가량 높음
- 2024년 기준 30대(여성, 2.8%, 남성 5.3%)와 40대(여성 5.4%, 남성 5.9%)는 남성 우울감 경험률이 여성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간 우울감 경험률 격차가 가장 큰 연령구간은 60대임. 60대 여성 우울감 경험률은 12.8%로 같은 연령대 남성(3.9%)과 8.9% 격차를 보일뿐만 아니라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 서구 여성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2022년 26.3%에서 2023년 29%로 증가했으나 2024년에는 전년대비 4.5% 하락한 24.5%를 기록함
- 반면, 남성 스트레스 인지율은 2022년 19%, 2023년 24.9%, 2024년 27.9%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24년에는 여성을 앞서는 것도 함
- 2024년 기준 30대와 60대는 여성의 스트레스 인지율이 남성보다 높으나, 19~29세, 40대, 50대, 70세 이상 연령구간에서는 남성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됨
- 성별간 스트레스 인지율 차이가 가장 큰 연령은 11.5% 격차를 보이는 40대이며, 40대의 남성 스트레스 인지율(36.9%)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남

[6-3 자살률]
[6-11 스트레스 인지율]
[6-12 우울감 경험률]
[6-13 자살생각률]
[12-24 군구별 자살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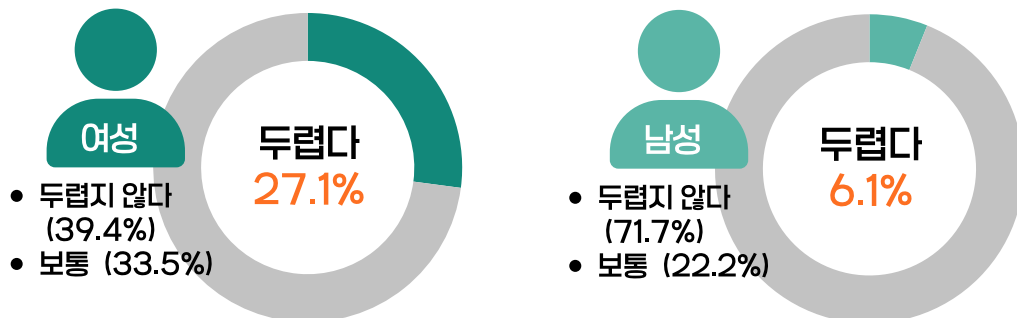
서구의 일상 속 안전 인식과 대응

서구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의 범죄피해 두려움(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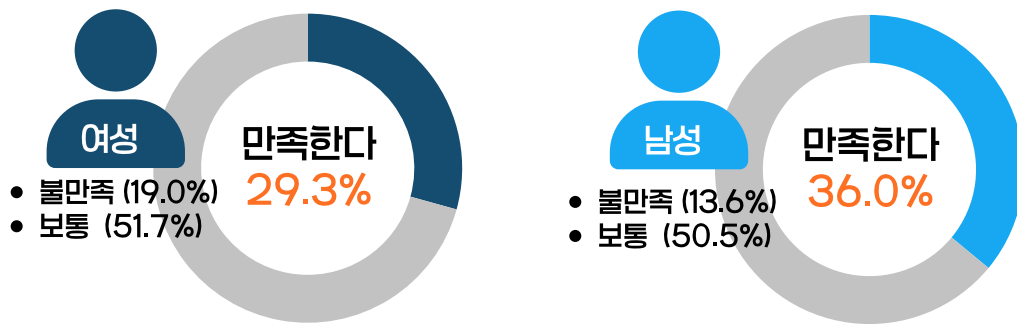
자료 : 인천광역시, 사회조사 / 인천의 사회지표_서구

서구 밤에 혼자 지역(동네)의 골목길을 걸을 때의 범죄피해 두려움(2024)



자료 : 인천광역시, 사회조사 / 인천의 사회지표_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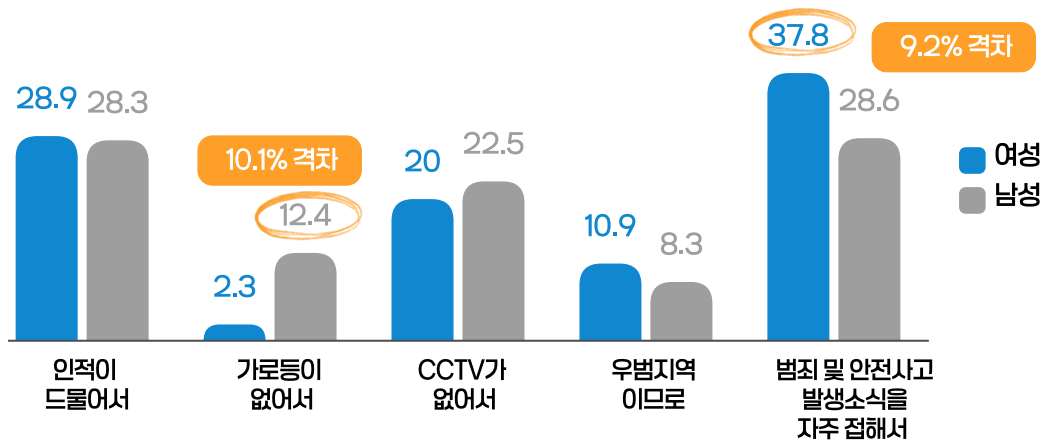
서구 야간 보행환경 만족도(2024)



자료 : 인천광역시, 사회조사 / 인천의 사회지표_서구

서구 야간보행 두려움의 원인(2024)

단위 : %



자료 : 인천광역시, 사회조사 / 인천의 사회지표_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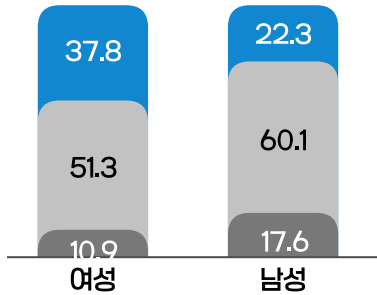
서구의 일상 속 안전 인식과 대응

서구 일상생활 속 위험요소 대처 방법 인지도(2024)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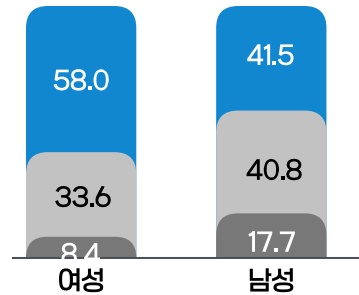
소화기(소화전) 활용법



- 정확히 알고 있다
-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
-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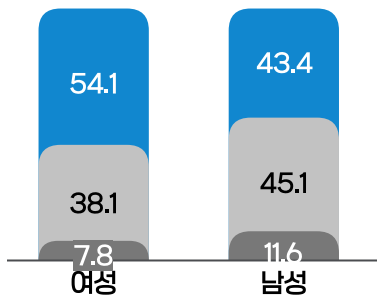
심폐소생술



- 정확히 알고 있다
-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
-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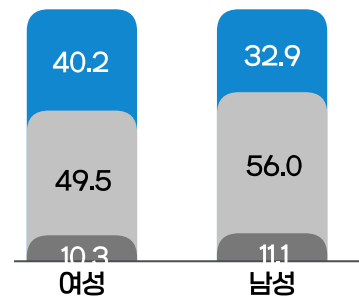
상황별(화재, 지진, 홍수) 대비요령



- 정확히 알고 있다
-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
- 모른다



전염병 등 발생시 조치 요령



- 정확히 알고 있다
-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
- 모른다

자료 : 인천광역시, 사회조사 / 인천의 사회지표_서구

2024년 여성이 남성보다 혼자 있을 때 범죄 피해 두려움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2024년 사회조사에서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범죄피해 두려움'을 느낀다는 여성은 26.3%인 것에 비해 남성은 6.1%임
- '밤에 혼자 지역(동네)의 골목길을 걸을 때의 범죄피해 두려움'과 관련해서 여성은 남성(6.1%)보다 약 4배 이상이 많은 27.1%가 두렵다고 응답함

2024년 야간 보행환경 만족도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고, 야간보행 두려움의 원인 중 성별 간 큰 격차를 보이는 문항은 '가로등이 없어서'와 '범죄 및 안전사고 발생소식을 자주 접해서'임

- 여성이 밤에 혼자 지역(동네)의 골목길을 걸을 때 남성보다 더 범죄피해의 두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가운데 야간보행 환경에 대한 여성(29.3%)의 만족도가 남성(36.0%)보다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됨
- 2024년 야간보행 두려움의 원인은 서구 여성과 남성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남. 여성과 남성이 가장 많이 선택한 문항은 '범죄 및 안전사고 발생소식을 자주 접해서'이나 여성 37.8%, 남성 28.6%로 9.2%의 응답률 격차가 나타남
- 성별 간 격차가 큰 또 다른 문항은 '가로등이 없어서'로 남성 응답률(12.4%)이 여성(2.3%)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됨. 이와 더불어 남성은 'CCTV가 없어서'(남성 22.5%, 여성 20.0%)를 꼽은 비율이 여성보다 높았음. 반면, 여성은 '우범지역이므로'에 대한 응답률이 높았음
- 이를 종합하면, 야간보행의 두려움 원인에 대해 남성은 가로등, CCTV 등 안전 시설의 설치 여부가 중요한 요인인 반면, 여성은 범죄 발생 소식과 우범지역 등 안전심리적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됨

2024년 '심폐소생술'을 '모른다'는 남성은 41.5%이나 여성은 58.0%로 일상생활 속 위험요소 대처 방법 인지도 중 가장 큰 남녀간 차이를 보임

- 최근 안전사고 발생 시 성별에 따른 대응 역량의 차이와 이로 인한 상이한 인적 피해 결과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
- 이와 관련하여, 서구 또한 일상생활 속 위험요소 발생 시 대처 방법 인지도에 대한 성별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남. 가장 큰 격차를 보인 문항은 '심폐소생술'이며, '모른다'고 응답한 남성은 41.5%, 여성은 58.0%로 16.5%의 격차를 보임
- '소화기(소화전) 활용법'도 성별 격차가 비교적 큰 문항임. 설문응답자 남성의 22.3%만이 모른다고 응답했으나 여성은 37.8%에 달함(15.5% 성별 격차)
- '화재, 지진, 홍수 등 상황별 대비요령'에 대해 모른다는 여성은 54.1%, 남성은 43.4%였으며, '전염병 등 발생시 조치 요령'도 여성(40.2%)이 남성(32.9%)보다 인지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됨

[10-3 일상생활 속 위험요소 대처 방법 인지도]

[10-20 야간 보행환경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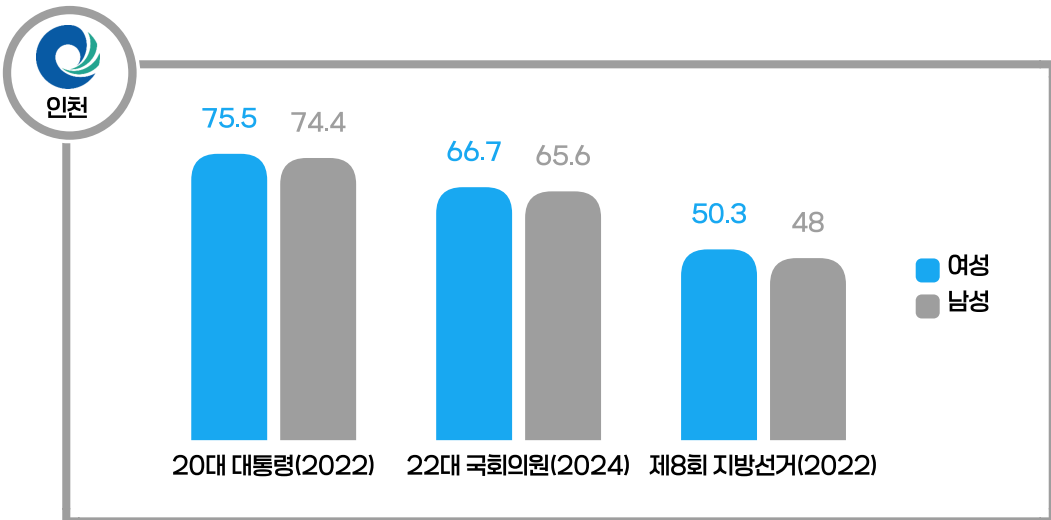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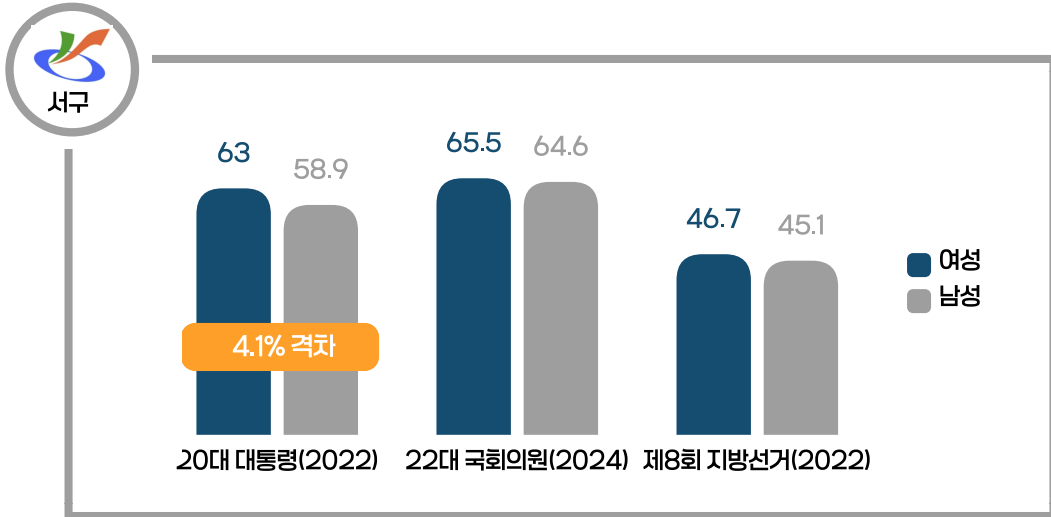
[11-13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의 범죄피해 두려움]

[11-14 밤에 혼자 지역(동네)의 골목길을 걸을 때의 범죄피해 두려움]

[11-15 야간보행에 대한 두려움의 원인]

서구의 정치(선거) 참여와 사회참여

서구 주요 선거 성별 투표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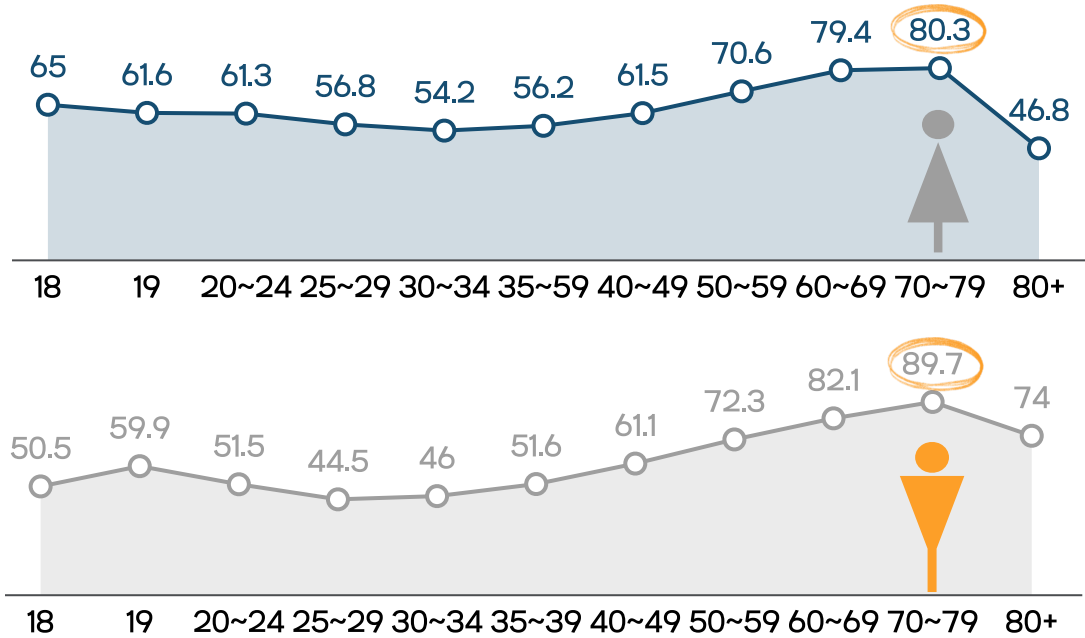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대 대통령선거 투표율 분석 / 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분석 /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 분석

- 주 : 1) 20대 대통령 선거 -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교분석을 위한 표본 추출 투표율 분석임(전체 선거인의 10.3%)
 2) 22대 국회의원 선거 -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교분석을 위한 표본 추출 투표율 분석임(전체 선거인의 10.1%)
 3) 8회 지방선거 -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교분석을 위한 표본조사 결과임(표본 수는 전체선거인의 10.3%)

6. 참여와 대표성

서구 성별/연령별 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2024)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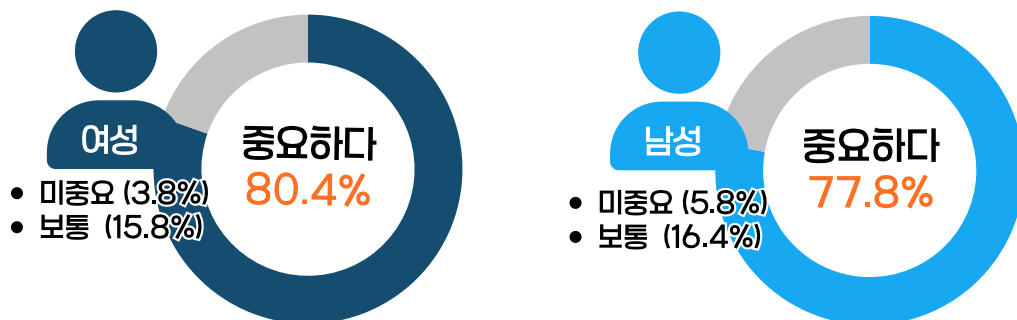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분석

주 : 1) 22대 국회의원 선거 -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교분석을 위한 표본 추출 투표율 분석임(전체 선거인의 10.1%)
2) 연령별 투표율은 각 연령별 선거인 수 대비 투표자 수의 비율임

서구 선거에 대한 시민의식과 참여(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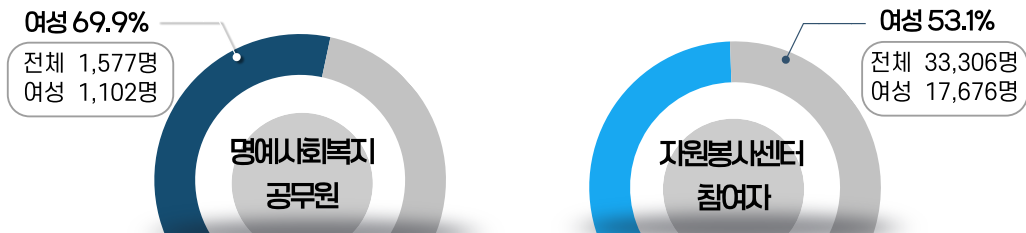
» 선거 시 반드시 투표에 참여한다



자료 : 인천광역시, 사회조사 / 인천의 사회지표_서구

서구의 정치(선거) 참여와 사회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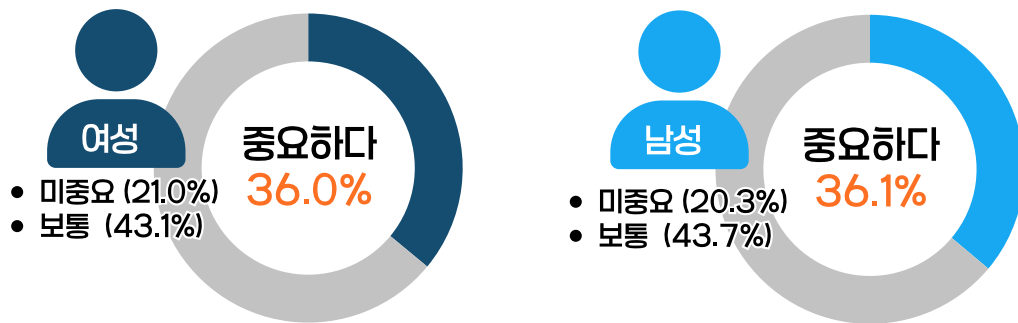
서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자원봉사 참여자(2024)



자료 : 서구청 행정자료

서구 사회.정치단체 활동에 대한 시민의식과 참여(2024)

» 사회 또는 정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자료 : 인천광역시, 사회조사 / 인천의 사회지표_서구

6. 참여와 대표성

■ 대통령선거(20대), 국회의원선거(22대), 지방선거(8회)의 서구 투표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음

- 20대 대통령선거 여성투표율은 63.0%로 남성(58.9%)보다 높았으며, 22대 국회의원선거(여성 65.5%, 남성 64.6%)와 8회 지방선거(여성 46.7%, 남성 45.1%) 또한 여성 투표율이 남성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남
- 여성과 남성 모두 국회의원 선거 > 대통령선거 > 지방선거 순으로 투표율이 높았으며, 이 중 성별 간 투표율 격차가 큰 선거는 20대 대통령 선거였음(4.1%차/여성 63%, 남성 58.9%)
- 대통령선거(20대), 국회의원선거(22대), 지방선거(8회) 모두 여성과 남성 각각 서구의 투표율은 인천 평균 투표율 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됨

■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여성과 남성 모두 '70대'의 투표율이 가장 높음

- 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여성(80.3%)과 남성(89.7%) 모두 70대의 투표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50세를 기준으로 50대 미만 연령구간에서는 여성의 투표율이 남성을 앞서나, 50대 이상 연령구간인 50대, 60대, 70대, 80세 이상에서는 남성의 투표율이 여성보다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됨

■ 서구 여성이 남성보다 선거 참여 인식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24년 사회조사에서 '선거 시 반드시 투표에 참여한다'는 시민의식과 관련하여 중요하다라는 서구 여성응답률은 80.4%, 남성은 77.8%로 여성이 근소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됨

■ 2024년 서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여성비율은 69.9%, 자원봉사자 여성참여자 비율은 53.1%임

- 2024년 명예사회복지공무원 1,577명 중 여성은 1,102명으로 69.9%의 구성비를 보임. 자원봉사센터 참여자 또한 전체 33,306명 중 53.1%에 해당되는 17,676명이 여성임

■ 2024년 서구민 10명 중 약 3명은 사회 또는 정치 단체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사회 또는 정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다'와 관련하여 서구 여성의 36.0%와 남성 36.1%가 중요하다고 응답함

[8-1 대통령선거 투표율]

[8-2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8-3 지방선거 투표율]

[8-7 명예사회복지공무원]

[8-8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참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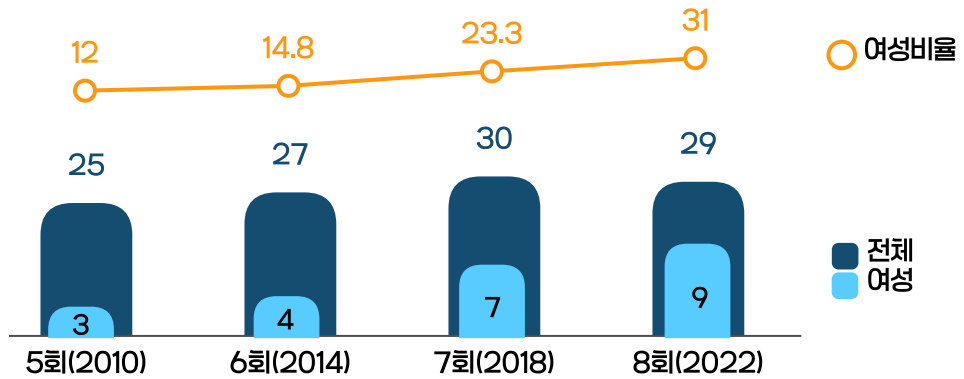
[8-10 선거에 대한 시민의식과 참여]

[8-14 사회·정치단체 활동에 대한 시민의식과 참여]

서구의 정치와 행정분야 대표성

서구 기초의원선거 입후보자(선거구/5회~8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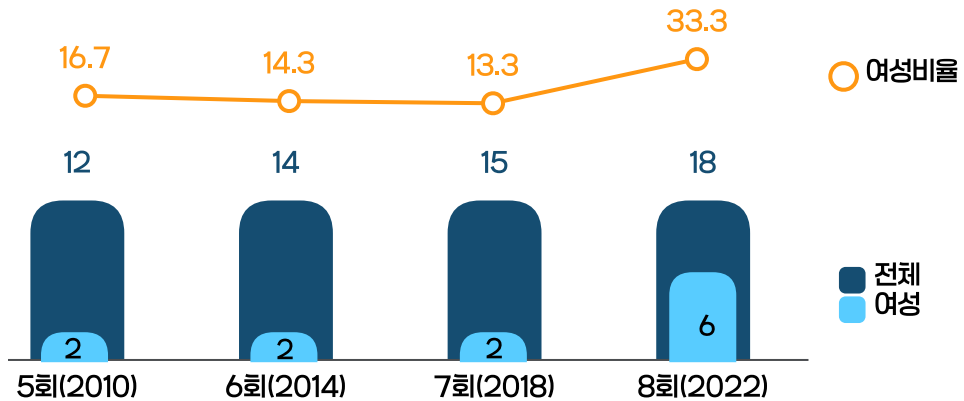
단위 : %, 명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DB
주 : 후보자 통계에서 사퇴, 사망, 등록무효자는 제외함

서구 기초의원선거 당선자(선거구/5회~8회)

단위 :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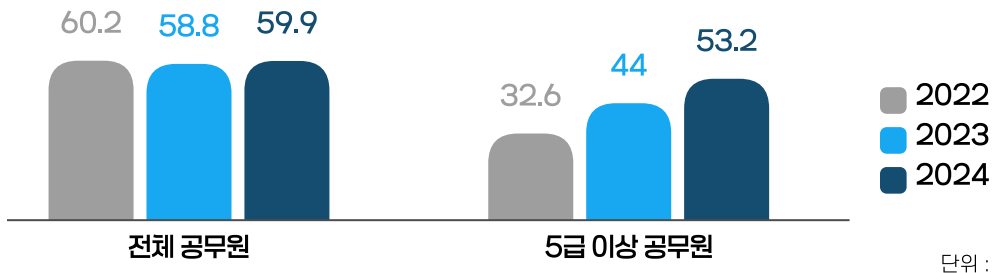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DB
주 : 후보자 통계에서 사퇴, 사망, 등록무효자는 제외함

6. 참여와 대표성

서구 5급 이상 공무원 여성비율(2022~2024)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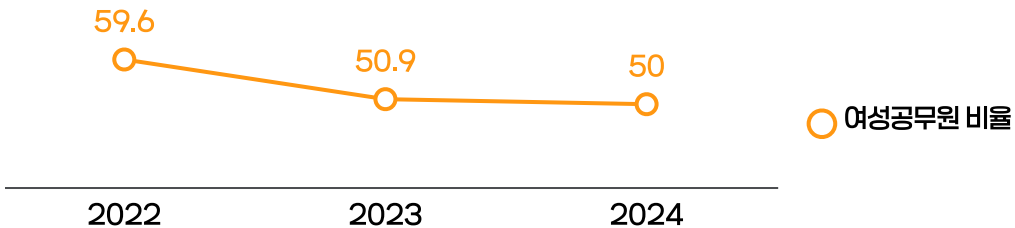


구분	전체공무원			5급 이상 공무원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2022	1,573	947	626	86	28	58
2023	1,453	855	598	75	33	42
2024	1,485	890	595	79	42	37

자료 : 서구청 행정자료(12월말 기준)

서구 주요부서 공무원 여성비율(2022~2024)

단위 : %



구분	2022			2023			2024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공무원	198	118	80	228	116	112	204	102	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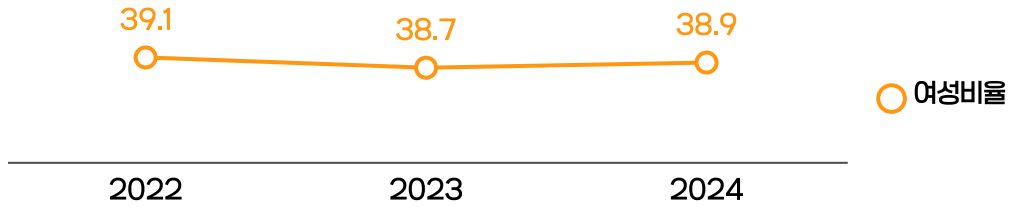
자료 : 서구청 행정자료(12월말 기준)

주 : 주요부서에는 기획부서, 예산부서, 인사부서, 감사부서, 실.국 주무과가 포함됨

서구의 정치와 행정분야 대표성

서구 위원회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2022~2024)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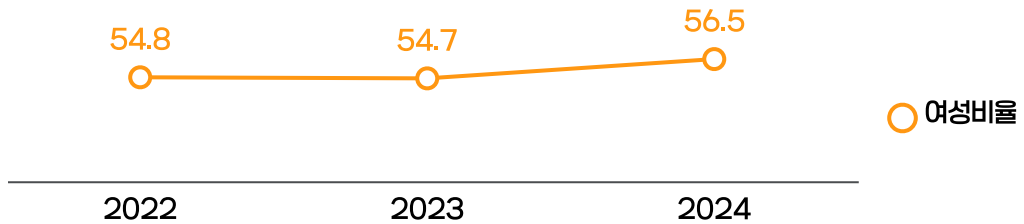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2022			2023			2024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위촉직	719	281	438	918	355	563	943	367	576

자료 : 서구청 행정자료

서구 주민자치회 여성비율(2022~2024)

단위 : %



단위 : 명

구분	2022			2023			2024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주민자치회	753	413	340	739	404	335	658	372	286

자료 : 서구청 행정자료

6. 참여와 대표성

8회 서구 기초의원선거 입후보자 여성비율은 31.0%, 당선자 여성비율은 33.3%임

- 서구 기초의원 선거 입후보자 여성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5회(2010년) 입후보 여성비율은 12.0%에 그쳤으나 6회(2014년) 14.8%, 7회(2018년) 23.3%, 8회(2022년) 31% 등 최근 선거일수록 큰 폭으로 상승함
- 이와 더불어 당선자 여성비율도 향상되고 있음이 확인됨. 5회(2010년) 16.7%에 불과했던 당선자 여성비율은 8회(2022년) 33.3%로 증가함

2024년 서구 5급이상 여성비율은 53.2%이며 3년간(2022~2024년) 지속적으로 증가함

- 서구 전체 공무원 중 여성비율은 2022년 60.2%, 2023년 58.8%, 2024년 59.9%임
- 이에 비해 5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비율은 2022년 32.6%였으나 2023년 44.0%, 2024년 53.2%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기획부서, 예산부서, 인사부서, 감사부서, 실·국 주무과 등 주요부서에 배치된 여성비율은 2022년 59.6%, 2023년 50.9%, 2024년 50.0%로 최근 3년간 하락하는 경향성이 나타남

2024년 서구 위촉직 여성비율은 38.9%, 주민자치회 여성비율은 56.5%임

- 서구 각종위원회 위촉직 여성비율은 2022년 39.1%에서 2023년 38.7%로 하락하였으나 2024년에는 전년도 보다 소폭 증가한 38.9%를 기록함
- 서구 주민자치회의 여성비율도 2022년 54.8%에서 2023년 54.7%로 근소하게 하락하였으나 2024년 56.5%로 다시 상승함

[8-6 기초의원 선거 입후보자 및 당선자]
[11-1 공무원 현황]
[11-2 주요부서 공무원 현황]
[11-23 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11-25 주민자치회 현황]

03

영역별 젠더그래픽스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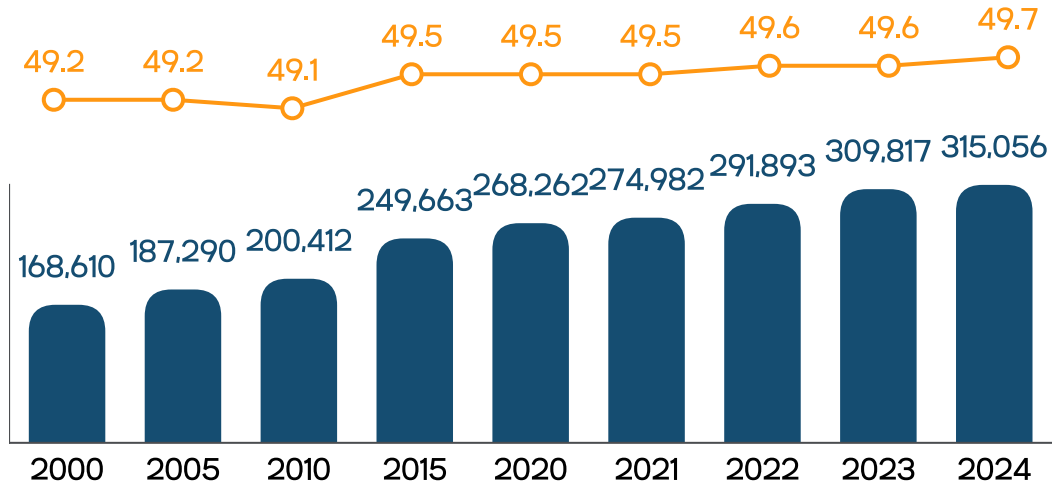
Seo-gu Gender Statistics

- 주민등록 여성인구 및 여성비율
- 연령별 인구 및 성비
- 성별 중위연령
- 부양비 및 성별 노령화지수
- 등록외국인 추이 및 여성비율
- 국적별 등록외국인 및 여성비율
- 결혼이민자 추이
- 합계출산율 추이
- 조출산율 및 모의 출산연령
- 출생률 제고를 위한 정책적 수요
- 여성가구주
- 혼인과 초혼 연령
- 이혼
- 보육 및 유아교육 대상 아동
- 시설유형별 어린이집 현황
- 어린이집/유치원 여성 교원
- 학업중단률
- 초/중/고 직위별 여성 교원
-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 평생교육 참여 현황
- 성별/산업별 취업자
- 성별/직업별 취업자
- 치매진료환자 및 치매유병률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성비율
- 문화시설에 대한 견해
- 체육시설에 대한 견해
- 서부경찰서 가정폭력 피해자 현황
- 서부경찰서 성폭력 피해자 현황
- 지역안전지수
- 성별 통근(통학) 교통수단

주민등록 여성인구 및 여성비율

서구 여성인구 및 여성비율 추이(2000~2024)

단위 : %, 명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외국인 제외)

- 2024년 서구의 주민등록인구 634,064명 중 여성인구는 315,056명으로 49.7%를 차지함
- 서구의 여성인구는 2000년 168,610명에서 2024년 315,056명으로 약 86.9%p나 증가함
- 여성비율은 2020년 49.2%에서 2015년 49.5%, 2022년 49.6%, 2024년 49.7% 등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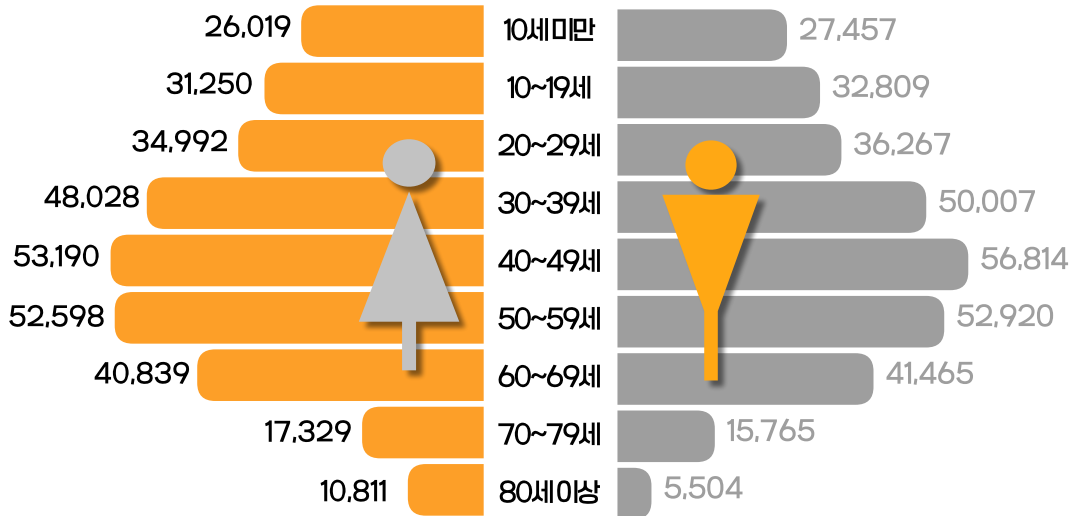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20	2021	2022	2023	2024
전체	342,973	380,916	408,068	504,606	542,040	555,380	589,013	624,358	634,064
여성	168,610	187,290	200,412	249,663	268,262	274,982	291,893	309,817	315,056
남성	174,363	193,626	207,656	254,943	273,778	280,398	297,120	314,541	319,008

[1-2 주민등록인구 추이]

연령별 인구 및 성비

서구 연령별 주민등록인구(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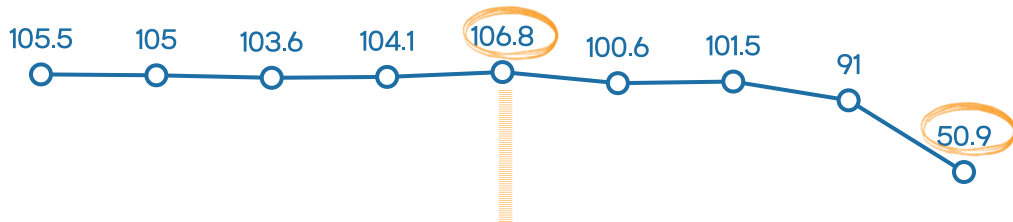
단위 : 명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외국인 제외)

서구 연령별 성비(2024)

단위 : %



10세 미만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외국인 제외)

주 : 인구의 성별 구조를 나타내는 지표로 여자 100명당 남자의 수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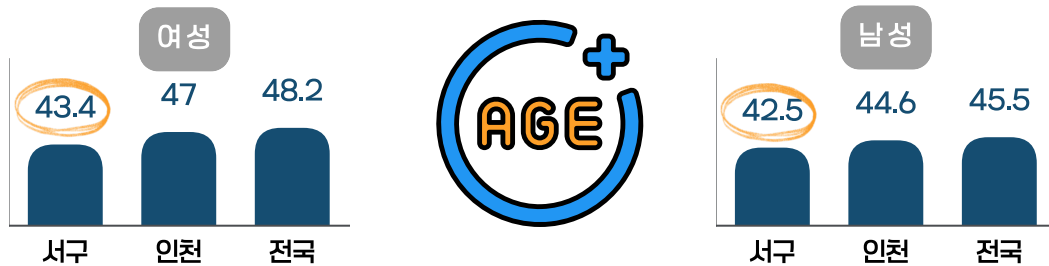
- 2024년 기준 여성인구가 가장 많이 분포하는 연령대는 전체 여성인구의 약 16.9%에 해당하는 40~49세(53,190명)이며 남성 또한 40대 인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음(56,814명/17.8%)
- 연령구간별 10세 미만에서 60대까지는 남성의 인구가 여성을 앞서지만 70대와 80세 이상에서는 여성의 인구가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40대의 연령구간 성비는 106.8%로, 여성인구에 비해 남성인구가 가장 많은 연령대임.
반면, 80세 이상에서는 여성인구가 남성인구보다 약 2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남(성비 50.9%)

[1-8 연령별 인구]

성별 중위연령

서구, 인천, 전국 중위연령(2024)

단위 :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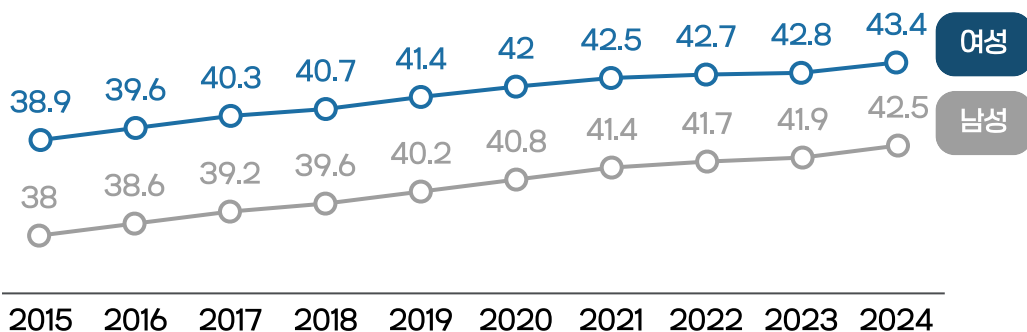


자료 :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외국인 제외)

주 : 중위연령은 총 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할 때 중앙에 있는 사람의 연령임

서구 중위연령 변화 추이(2015~2024)

단위 : 세



자료 :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외국인 제외)

주 : 중위연령은 총 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할 때 중앙에 있는 사람의 연령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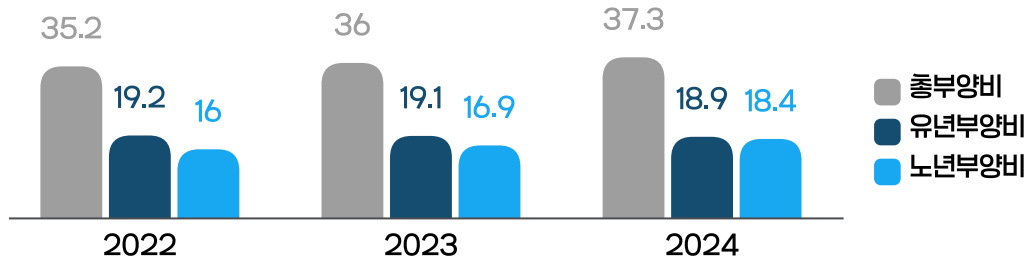
- 2024년 서구 여성의 중위연령은 43.4세로 남성의 42.5세보다 약 0.9세 많음
- 서구 여성의 중위연령은 인천(47세)과 전국 평균(48.2세)보다 낮으며 남성 또한 인천(44.6세)과 전국(45.5세)보다 낮음
- 최근으로 올수록 고령화 현상이 뚜렷해짐에 따라 서구의 중위연령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2015년 38.9세였던 여성의 중위연령은 2024년 43.4세로 약 4.5세 증가했으며,
남성도 같은 기간 38세에서 42.5세로 여성과 동일하게 4.5세 높아짐

[1-9 평균연령 및 중위연령]

부양비 및 성별 노령화지수

서구 부양비 추이(2022~2024)

단위 : %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외국인 제외)

주 : 1) 총부양비=유년부양비+노년부양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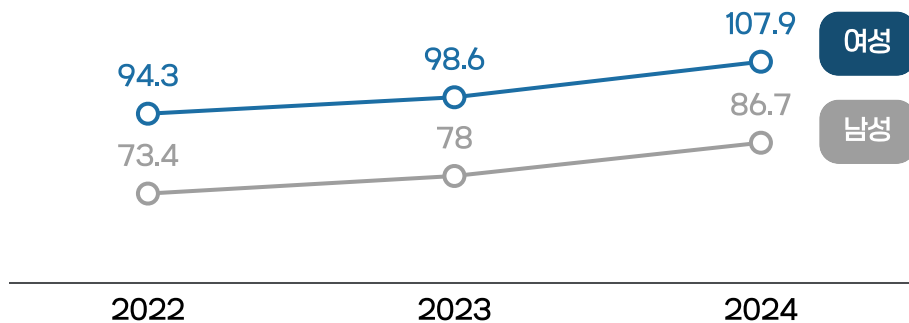
2) 유년부양비=유년인구(0~14세)/생산가능인구(15~64세)×100(생산가능인구 100명에 대한 유년인구의 비)

3) 노년부양비=고령인구(65세 이상)/생산가능인구(15~64세)×100(생산가능인구 100명에 대한 고령인구의 비)

4) 주민등록인구를 산식에 따라 가공한 자료로 통계청이 인구총조사를 기반으로 발표한 자료와 상이할 수 있음

서구 노령화지수 추이(2022~2024)

단위 : %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외국인 제외)

주 : 1) 노령화 지수=고령인구(65세 이상)/유년인구(0~14세)×100

2) 주민등록인구를 산식에 따라 가공한 자료로 통계청이 인구총조사를 기반으로 발표한 자료와 상이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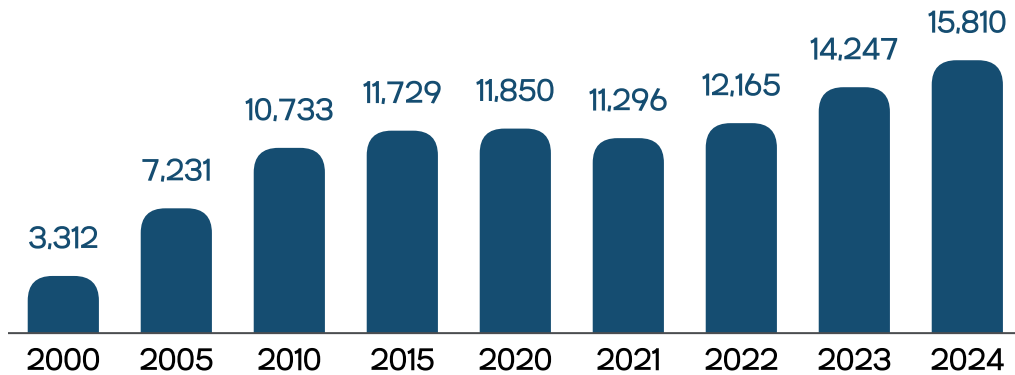
- 2024년 서구의 총부양비는 37.3%로 2022년 35.2%와 2023년 36%에 비해 증가함
- 노년부양비는 2022년 16.0%, 2023년 16.9%, 2024년 18.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유년부양비는 각각 19.2%(2022년), 19.1%(2023년), 18.9%(2024년)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서구의 노령화지수 또한 지난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여성 107.9%, 남성 86.7%로 여성 노령화지수가 남성을 앞섬

[1-14 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등록외국인 추이 및 여성비율

서구 등록외국인 추이(2000~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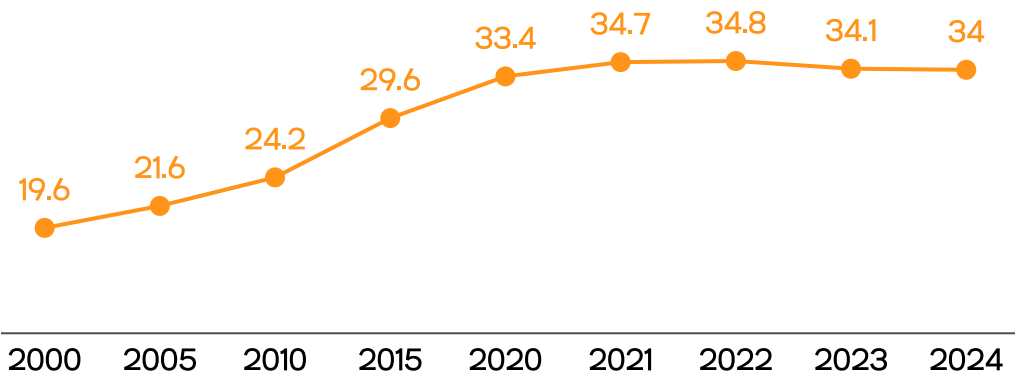
단위 : 명



자료 : 법무부, 출입국자 및 체류외국인통계(12월말 기준)

서구 등록외국인 여성비율(2000~2024)

단위 : %



자료 : 법무부, 출입국자 및 체류외국인통계(12월말 기준)

- 2000년 3,312명에 불과하던 서구의 등록외국인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24년에는 15,810명으로 약 377%p 증가함
- 등록외국인 여성비율은 2000년 19.6%였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4년에는 외국인 10명 중 약 3명에 해당되는 34%가 여성이 것으로 확인됨

[1-20 등록외국인 추이]

국적별 등록외국인 및 여성비율

서구 국적별 등록외국인(2024)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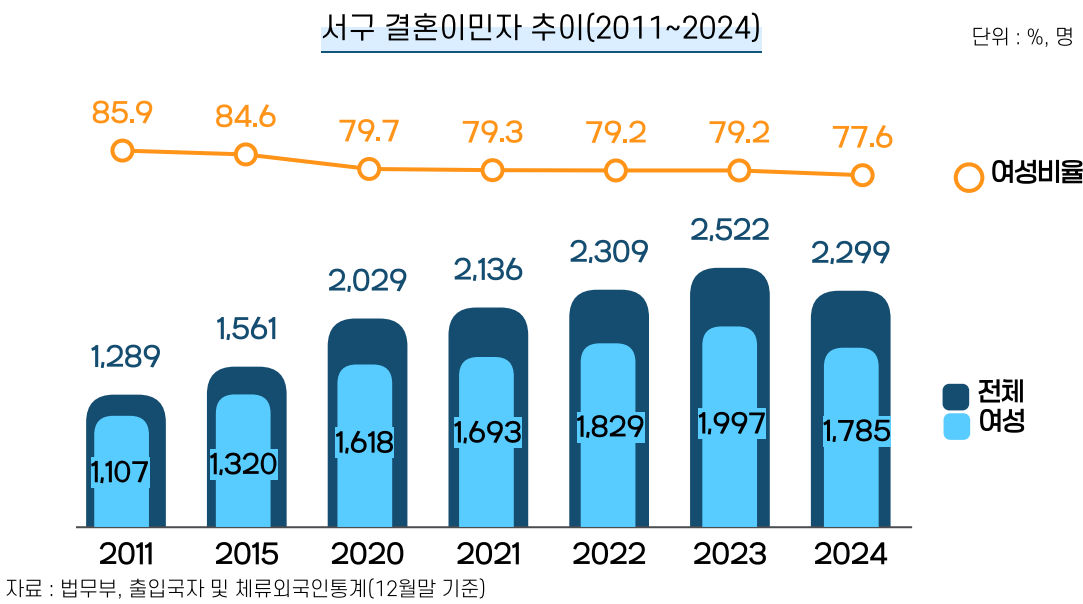
		구성비	여성비율
한국계중국인	2,300	14.5	44.8
베트남	1,985	12.6	46.9
중국	1,640	10.4	67.9
미얀마	1,440	9.1	3.7
필리핀	996	6.3	26.2
타이	928	5.9	27.2
방글라데시	765	4.8	15.2
네팔	724	4.6	7.7
인도네시아	669	4.2	6.0
파키스탄	634	4.0	12.1
캄보디아	550	3.5	9.8
몽골	380	2.4	46.1
우즈베키스탄	355	2.2	31.0
일본	321	2.0	85.0
스리랑카	317	2.0	8.8
타이완	216	1.4	49.1
미국	190	1.2	42.6
기타	1,400	8.9	43.8

자료 : 법무부, 출입국자 및 체류외국인통계(12월말 기준)

- 2024년 기준 서구 등록외국인 15,810명 중 14.5%에 해당되는 2,300명의 '한국계중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 뒤로 '베트남'(12.6%), '중국'(10.4%) 순으로 이어짐
- 그러나 국적별 여성비율은 상이함. 여성비율이 가장 높은 국적은 '일본'(85.0%) > '중국'(67.9%) > '베트남'(46.9%) > '몽골'(46.1%) > '한국계 중국인'(44.8%) 순임

[1-22 국적별 등록외국인 인구]

결혼이민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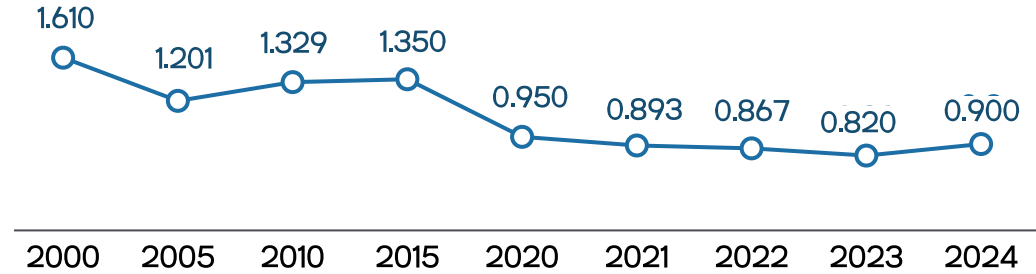
- 서구의 결혼이민자 수는 2011년 1,289명에서 매년 늘어나 2023년에는 2,522명으로 2011년 대비 약 95.7%p 증가함. 그러나 2024년에는 전년 대비 약 8.8% 감소한 2,299명이 거주하고 있음
- 지난 15년간 결혼이민자의 수는 증가하였으나 결혼이민자 여성비율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2011년 85.9%를 차지하던 여성비율은 2020년에는 80%로 밑으로 감소하였으며 2024년에는 이보다 더 하락한 77.6%의 비중을 보이고 있음

[1-23 결혼이민자 추이]

합계출산율 추이

서구 합계출산율 추이(2000~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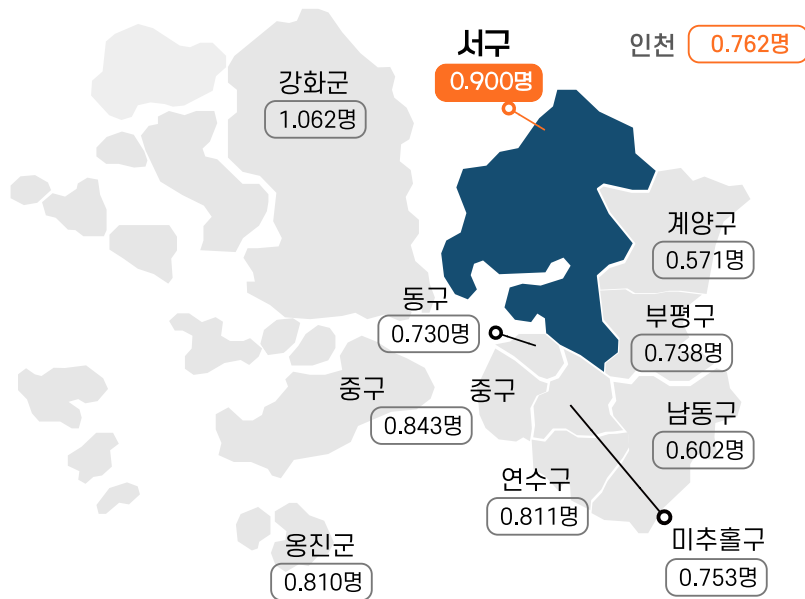
단위 : 명



자료 :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주 :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군구별 합계출산율(2024)



자료 :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주 :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 서구의 합계출산율은 2000년 1.610명에서 매년 감소하여 2020년에는 1명 이하로 떨어짐.
2023년에는 0.820명으로 하락하였으나 2024년에는 전년대비 상승한 0.900명을 기록함
- 지난 20여년간 감소 추세 있으나 2024년 기준 인천 평균 0.762명보다 높으며, 인천시 10개 군구 중 강화(1.062명)에 이어 2번째로 높은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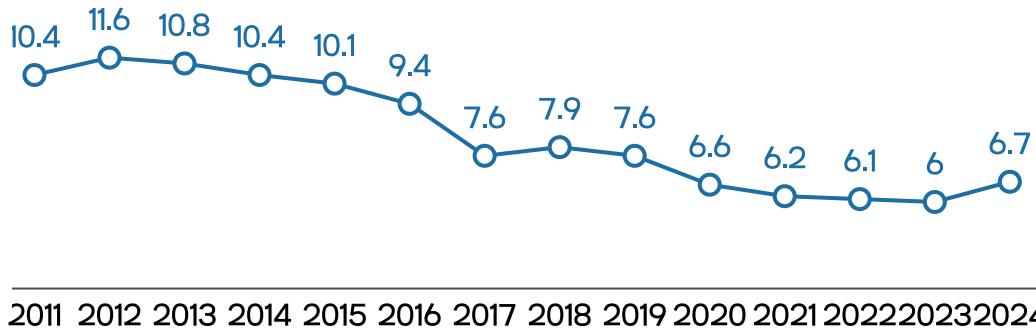
[1-27 합계출산율 및 모의 연령별 출산율]

[12-7 군구별 합계출산율 및 모의 연령별 출산율]

조출산율 및 모의 출산연령

서구 조출산율 추이(2011~2024)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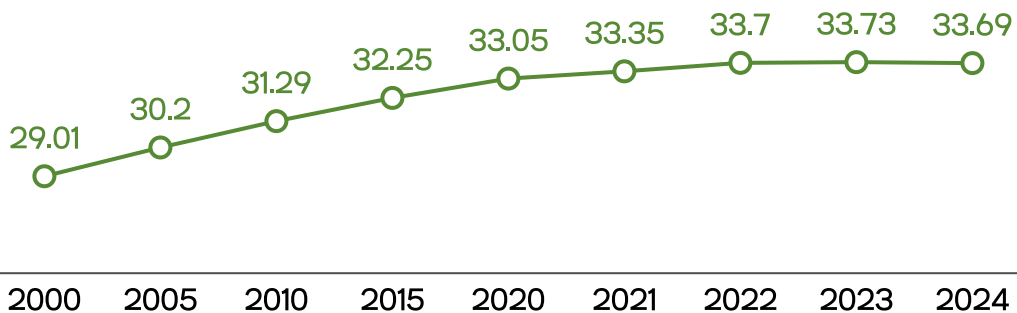


자료 :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주 : 조출생률=(특정 1년간의 총 출생아 수/당해연도의 연앙인구)×1,000, 인구 1천명 당 출생아 수

서구 모의 평균 출산 연령(2000~2024)

단위 : 세



자료 :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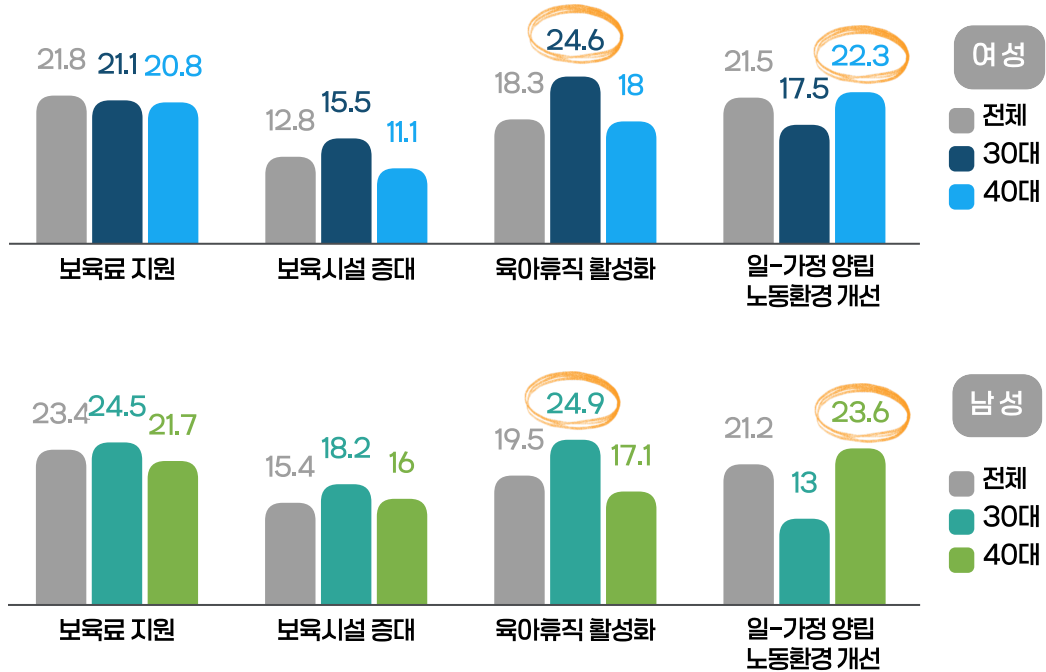
- 2011년 10.4명었던 서구의 조출산율은 2019년 7.6명으로 크게 하락한 이후 점차 감소하였으나 2024년에는 6.7명으로 전년대비 증가함
- 만혼화와 고연령 출산이라는 사회적 현상이 서구에서도 나타남. 2000년 서구의 평균 모의 출산 연령은 29.01세였으나 2024년에는 33.69세로 약 4.68세 증가함

[1-24 출생아 수 및 출생률]
[1-26 모의 연령별 출생아 수]

출생률 제고를 위한 정책적 수요

서구 출생률 제고를 위한 정책적 수요(2024)

단위 : %



자료 : 인천광역시, 사회조사 원자료 분석(응답률이 높은 4순위)
주 : 1순위 선택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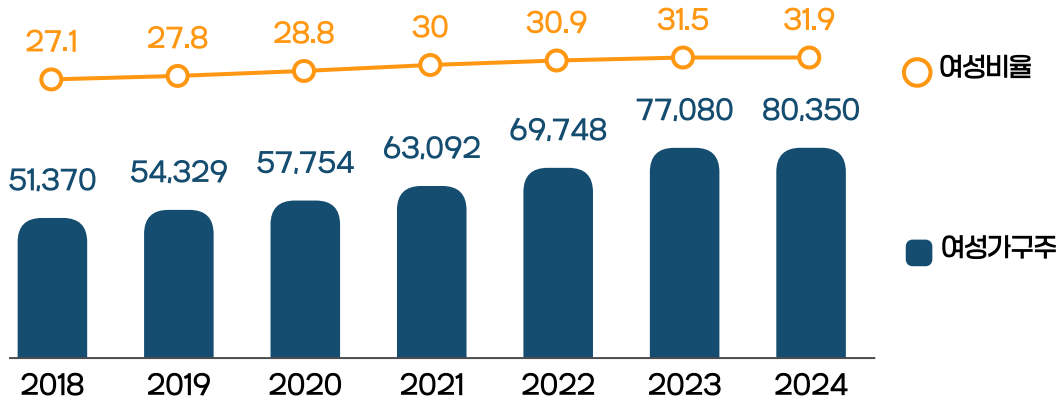
- 2024년 조사에 따르면 서구 여성은 출생률 제고를 위해 '보육료 지원'(21.8%) > '일-가정 양립 노동환경 개선'(21.5%) > '육아휴직 활성화'(18.3%) > '보육시설 증대'(12.8%)순으로 정책적 수요가 높았음
- 남성은 여성보다 '보육료 지원'(남성 23.4%)과 '보육시설 증대'(남성 15.4%), '육아휴직 활성화'(남성 19.5%)의 비율이 높은 반면, '일-가정 양립 노동환경 개선'(남성 21.2%)은 여성보다 낮았음
- 30대는 '육아휴직 활성화'(여성 24.6%, 남성 24.9%), 40대는 '일-가정 양립 노동환경 개선'(여성 22.3%, 남성 23.6%)를 꼽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1-30 출생률 제고를 위한 지원 정책]

여성 가구주

서구 여성가구주 현황(2018~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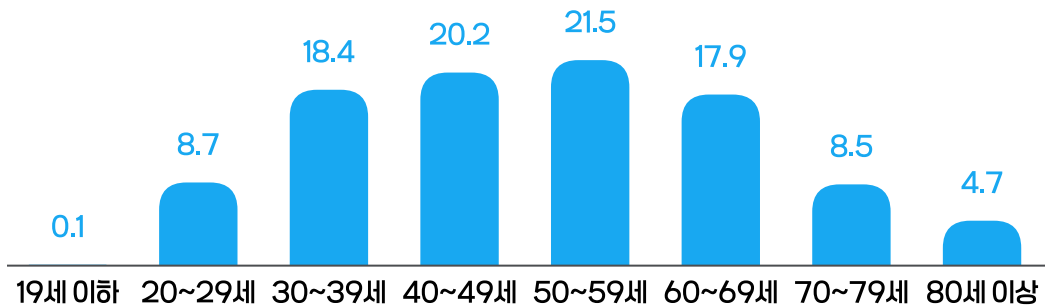
단위 : %, 가구



자료 :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

서구 연령별 여성가구주(2024)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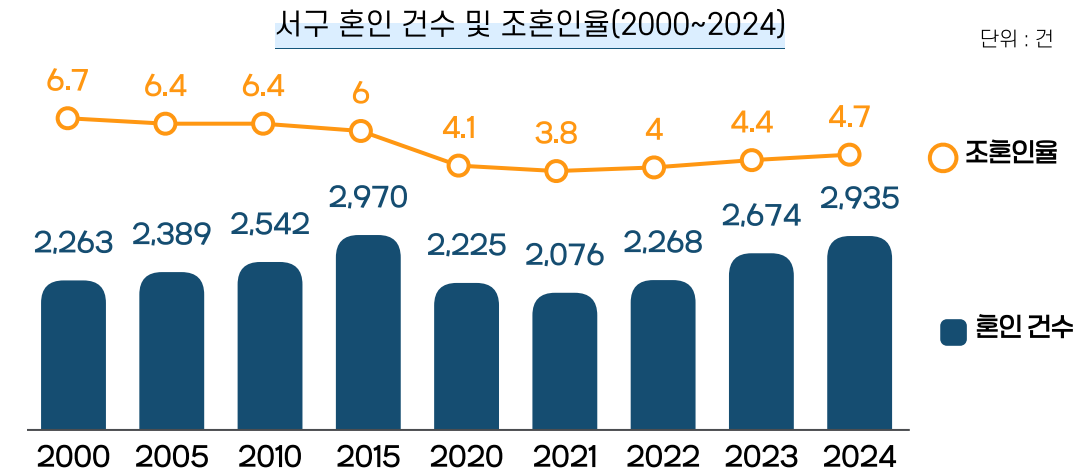


자료 :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

- 서구의 여성가구주는 2018년 51,370가구에서 2024년 80,350가주로 약 56.4%p 증가함
- 또한 총 가구주에서 차지하는 여성비율 또한 증가 추세에 있음. 2018년에는 27.1%였으나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24년에는 31.9%에 달함
- 2024년 기준 여성가구주 분포가 가장 높은 연령대는 50대(21.5%)이며, 40대(20.2%), 30대(18.4%), 60대(17.9%) 순으로 이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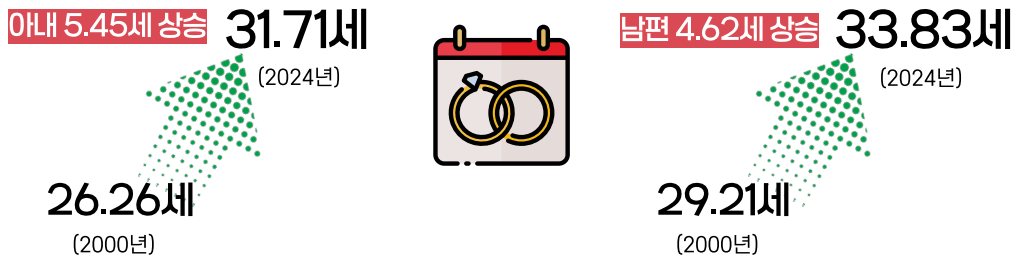
[2-6 성별 가구주]
[2-7 연령별 여성가구주]

혼인과 초혼 연령



자료 :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주 : 조혼인율은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의미함

서구 평균 초혼 연령 추이(2000/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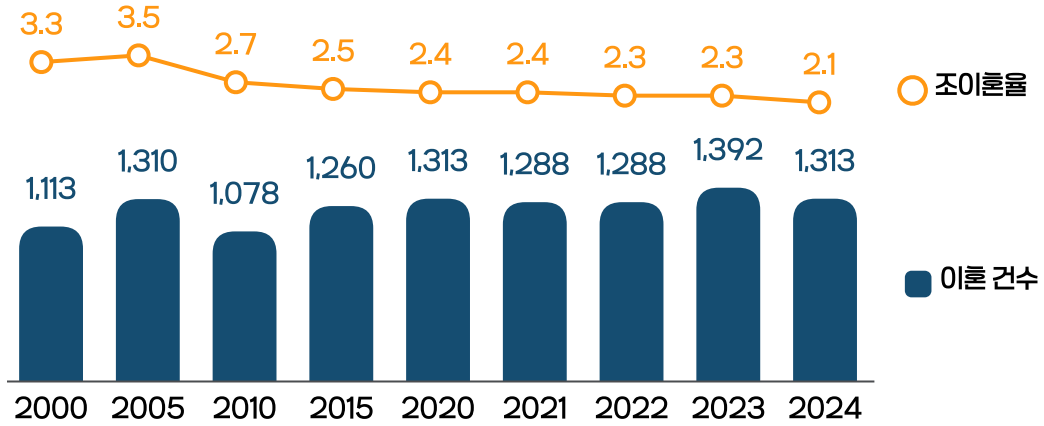
자료 :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 서구의 혼인 건 수는 2000년 2,263건에서 2015년 2,970건으로 증가한 후 2021년까지 감소하였으나 2022년부터는 다시 증가하여 2024년에는 2,935건을 기록함
- 최근 혼인 건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긴 하나,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의미하는 조혼인율은 2000년 6.7건에서 2024년 4.7건으로 하락함
- 사회적 이슈인 만혼화 현상은 서구에서도 나타남. 2000년 평균 초혼 아내 연령은 26.26세, 남성은 29.21세 였으나 2024년에는 각각 31.71세와 33.83세로 상승함

[2-19 혼인 건수 및 조혼인율]
[2-23 평균 초혼 연령]

서구 이혼 건수 및 조이혼율(2000~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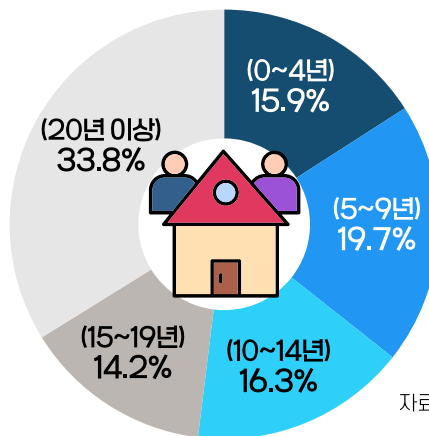
단위 : 건



자료 :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주 : 조이혼율은 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를 의미함

서구 동거기간별 이혼 비율(2024)



자료 :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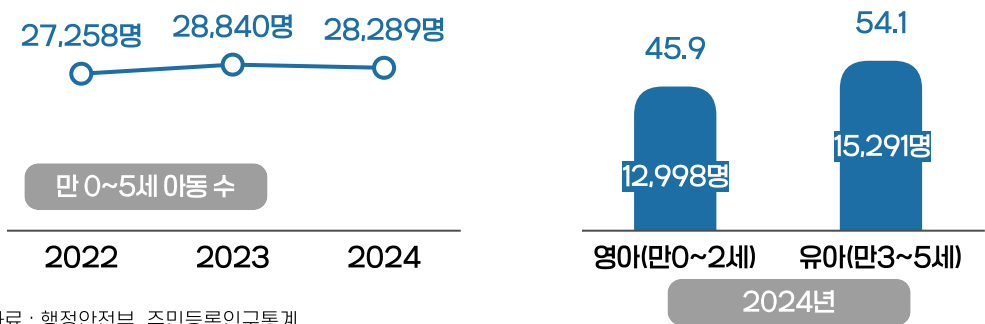
- 서구 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를 나타내는 조이혼율은 2000년 3.3건에서 2024년 2.1건으로 낮아짐
- 2024년 기준 동거기간별 이혼 비율을 살펴보면, 10건 중 약 3건(33.8%)은 '20년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한 이혼이었으며 그 뒤로 '5~9년'(19.7%), '10~14년'(16.3%), '0~4년'(15.9%), '15~19년' (14.2%) 순으로 이어짐

[2-24 이혼 건수 및 조이혼율]

[2-26 동거기간별 이혼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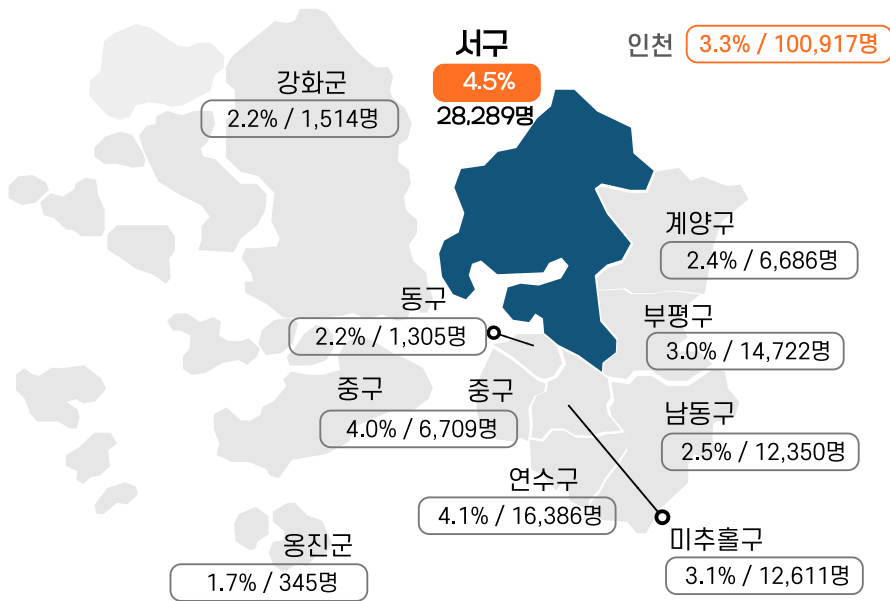
보육 및 유아교육 대상 아동

서구 보육 및 유아교육 대상 아동(2022~2024)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군구별 보육 및 유아교육 대상 아동(2024)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주 : 1) 비율은 전체 주민등록인구 대비 보육 및 유아교육대상 아동(만0~5세) 아동의 비율임
2) 인구는 보육 및 유아교육대상 아동(만0~5세) 아동 인구 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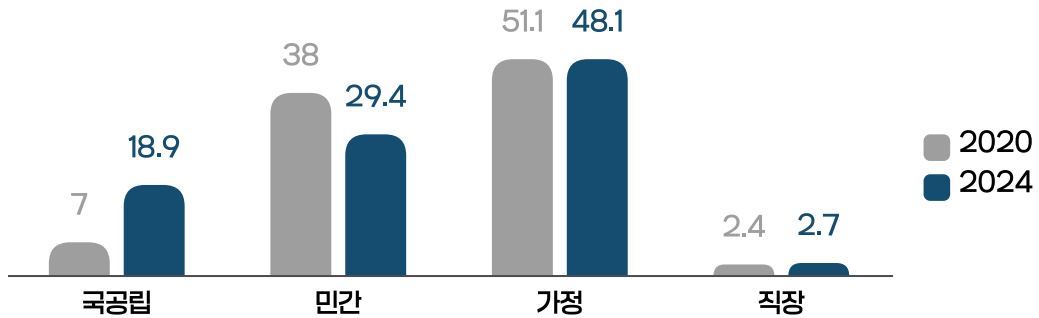
- 서구의 보육 및 유아교육대상 아동(만 0~5세)은 2022년 27,258명에서 2023년 28,840명으로 증가하였으나, 2024년에는 전년 대비 다소 하락한 28,289명임. 2024년 기준 영아(만0~2세)는 45.9%(12,998명), 유아는 54.1%(15,291명)임
- 2024년 서구 전체 주민등록인구 중 만0~5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4.5%로 인천시 평균(3.3%)보다 높을뿐만 아니라 10개 군구 중 가장 구성비가 많은 것으로 확인됨

[3-1 보육 및 유아교육 대상 아동]
[12-15 군구별 보육 및 유아교육 대상 아동]

시설유형별 어린이집 현황

서구 시설유형별 어린이집 현황(2020/2024)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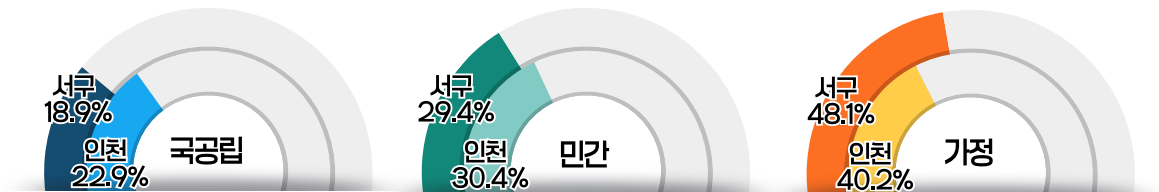
자료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보육정보공개

주 : 1)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 0.5%(2020년) / 0.5%(2024년)

2)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 0.7%(2020년) / 0.5%(2024년)

3) 협동어린이집 - 0.2%(2020년) / 0%(2024년)

서구/인천 시설유형별 어린이집 현황(2024)



자료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보육정보공개

- 2024년 서구 시설유형별 어린이집 분포를 살펴보면, '가정어린이집'이 48.1%로 가장 많고 그 뒤로 '민간어린이집'(29.4%), '국공립어린이집'(18.9%), '직장어린이집'(2.7%) 순으로 이어짐
- 2020년 대비 '국공립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의 비중은 증가한 반면,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비중은 낮아짐.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비중은 11.9% 증가함
- 2024년 인천시와 비교해 볼 때, 서구는 '가정어린이집' 비율은 인천시보다 높은 반면,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의 구성비는 인천시 보다 낮았음

[3-8 시설유형별 어린이집]

어린이집/유치원 여성 교원

서구 보육교직원 여성비율(2024)



자료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보육정보공개

서구 유치원 교원 여성비율(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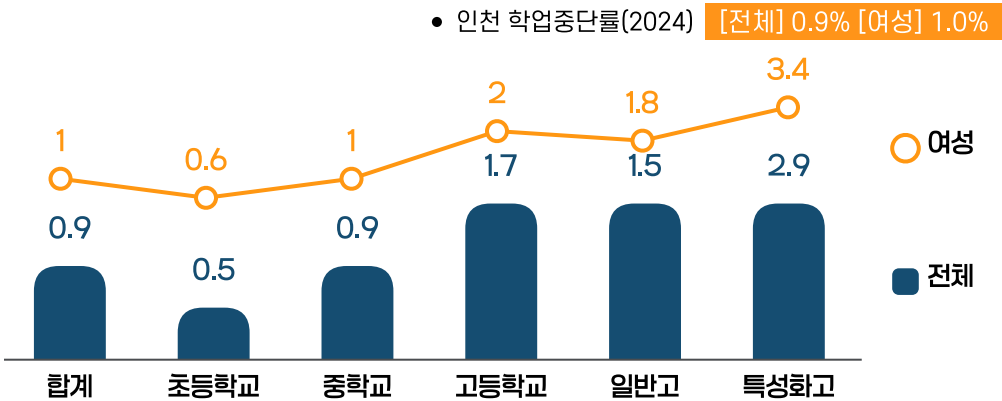
자료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통계연보

- 서구의 어린이집 보육교직원과 유치원 교원의 여성비율이 매우 높음
- 2024년 기준 어린이집 원장의 99%와 보육교사의 99.6%는 여성이었으며, 유치원 원장의 95.0%, 일반교사의 99.5% 역시 여성인 것으로 확인됨

[3-14 직종별 보육교직원]
[3-18 유치원 직위별 교원]

서구 학업중단률(2024)

단위 : %



자료 :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교육통계연보
주 : 1) 학업중단률(%)=(학업중단자/전년도 학생수)×100
2) 학업중단자 2024년 자료는 2023년 3월 1일~2024년 2월 말임
3) 전년도 학생 수는 전년 4월 1일 기준, 2024년 자료는 2023년 4월 1일임
4) 2024년 특수목적고의 학업중단률은 0%임

- 2023년 서구 초중고 전체 학생 수 69,537명 중 2024년 학업중단자는 602명으로 학업중단률은 0.9%임. 이는 같은 기간 인천시 평균 0.9%과 동일한 수준임
- 특성화고등학교 학업중단률이 2.9%로 가장 높았으며 초등학교는 0.6%로 가장 낮았음
- 여학생 학업중단률은 1.0%로 서구 전체 평균(0.9%)보다 높으며 특성화고 여학생 학업중단률은 3.4%에 달함. 특히, 2024년 특성화고 학업중단자 50명 중 92.0%에 해당되는 46명은 여학생인 것으로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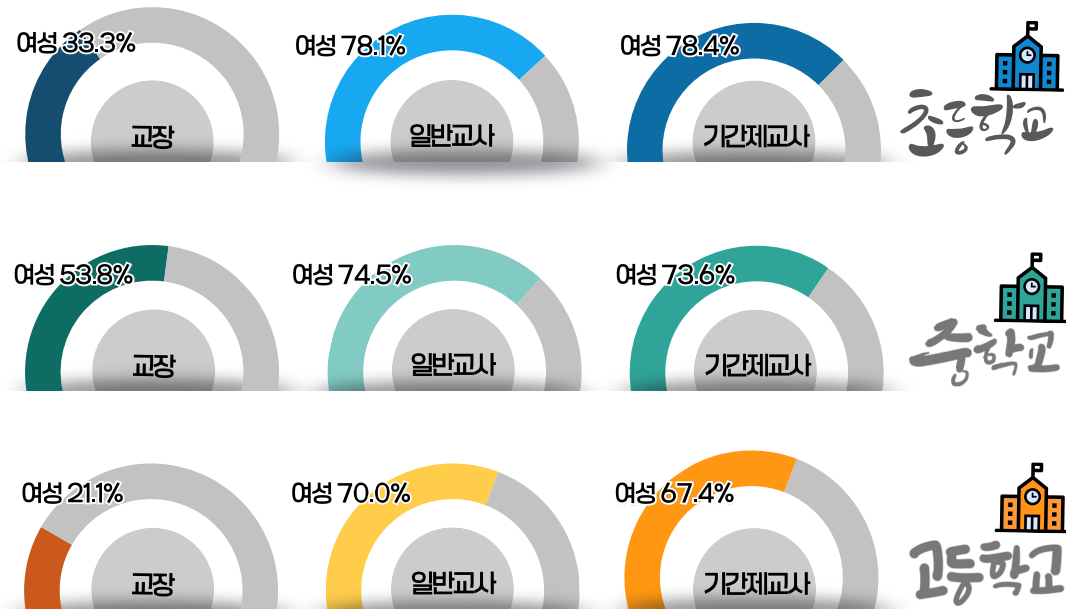
단위 : 명

2024		합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고	특성화고	특성화고
전체	전년도 학생 수	69,537	37,228	17,496	14,813	12,839	270	1,704
	학업 중단자	602	193	161	248	198	0	50
여성	전년도 학생 수	34,456	18,139	8,617	7,700	6,232	108	1,360
	학업 중단자	345	104	85	156	110	0	46

[4-12 학업중단률]

초/중/고 직위별 여성 교원

서구 초/중/고 직위별 교원(2024)



자료 :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교육통계연보

- 2024년 기준 서구 초/중/고등학교의 교장 여성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됨. 초등학교 교장의 여성비율은 33.3%, 고등학교는 21.1%에 불과하였으며 중학교는 이보다 높은 53.8%의 비율을 보임
- 반면, 일반교사와 기간제교사의 여성비율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서구 초/중/고 모두 일반교사 10명 중 약 7명은 여성이었는데, 이 중 초등학교 일반교사의 여성비율(78.1%)이 가장 높았음
- 기간제 교사 또한 초등학교의 경우 여성교원 비율이 78.4%에 달했으며, 중학교 73.6%, 고등학교 67.4%로 상급학교일수록 낮아지는 경향성이 나타남

[4-19 초등학교 직위별 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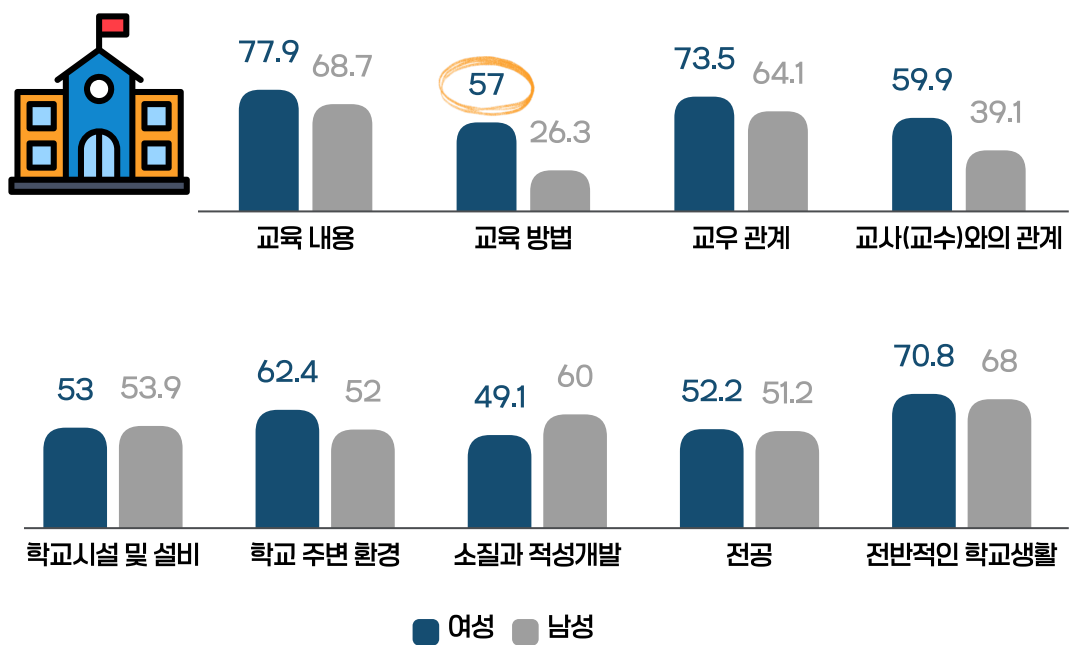
[4-20 중학교 직위별 교원]

[4-21 고등학교 직위별 교원]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서구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2024)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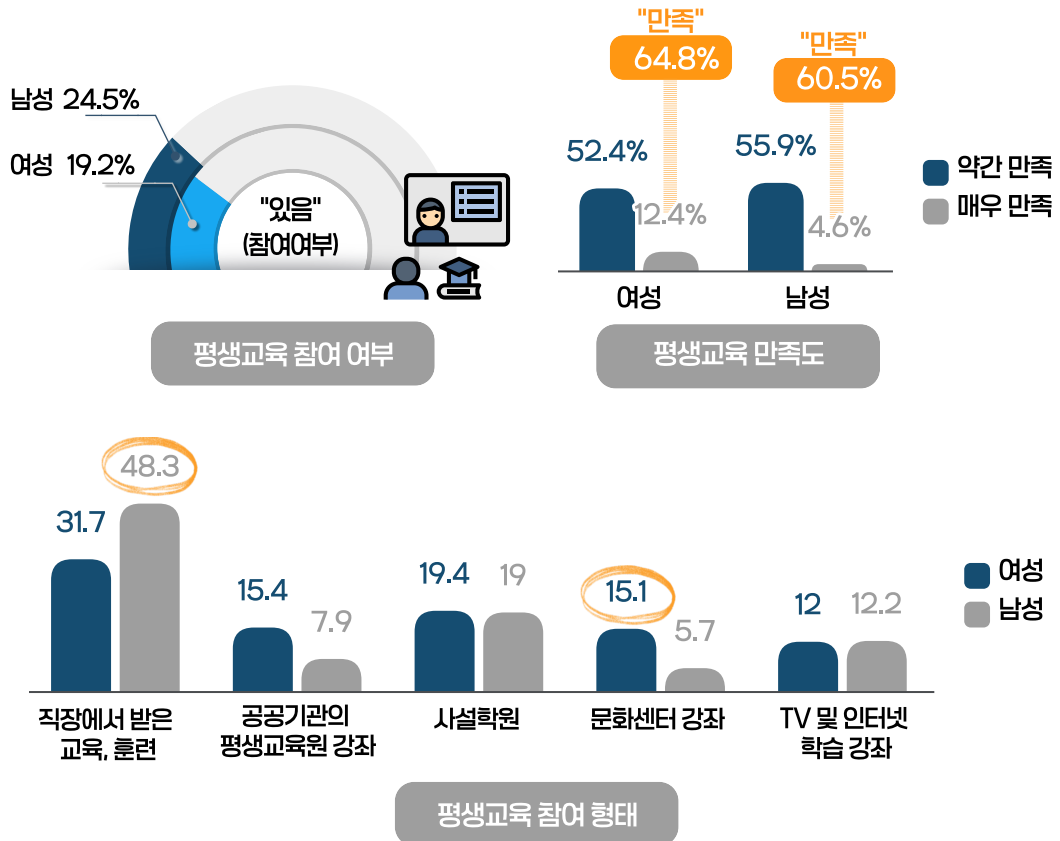
자료 : 인천광역시 사회조사 / 인천의 사회지표_서구
 주 : 학생대상 조사로 '만족한다'+매우 만족한다'의 응답률임

- 2024년 서구에 거주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생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교육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반면, '교육방법'에 대한 만족도는 가장 낮았음
-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교우 관계', '교사(교수)와의 관계', '학교 주변 환경', '전공', '전반적인 학교 생활' 만족도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으며 '학교시설 및 설비', '소질과 적성개발'에 만족한다는 응답률은 남학생이 더 높았음
- 여학생과 남학생의 만족도 격차가 가장 큰 문항은 '교육방법'에 대한 만족도로, 여학생의 만족도가 남학생보다 30.7% 높은 것으로 나타남

[4-28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평생교육 참여 현황

서구 평생교육 참여 현황(2023)



자료 : 인천광역시 사회조사 / 인천의 사회지표_서구

주 : 참여형태는 1순위 응답 결과이며, 응답률이 높은 상위 5순위

- 2023년 기준, 사회조사에 참여한 여성 응답자의 19.2%, 남성 24.5%는 평생교육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되어 남성의 평생교육 참여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참여한 평생교육에 '만족한다'는 여성은 64.8%로 남성(60.5%)의 만족도를 상회하였으며, 특히 '매우 만족한다'는 여성의 응답률(12.4%)은 남성(4.6%)을 크게 앞섬
- 평생교육 참여형태를 보면, 남성은 '직장에서 받은 교육, 훈련'(48.3%)과 'TV 및 인터넷 학습 강좌'(12.2%)가 여성보다 높은 반면, 여성은 '공공기관의 평생교육원 강좌'(15.4%), '사설학원'(19.4%), '문화센터 강좌'(15.1%)를 통해 평생교육을 수강한다는 응답이 남성보다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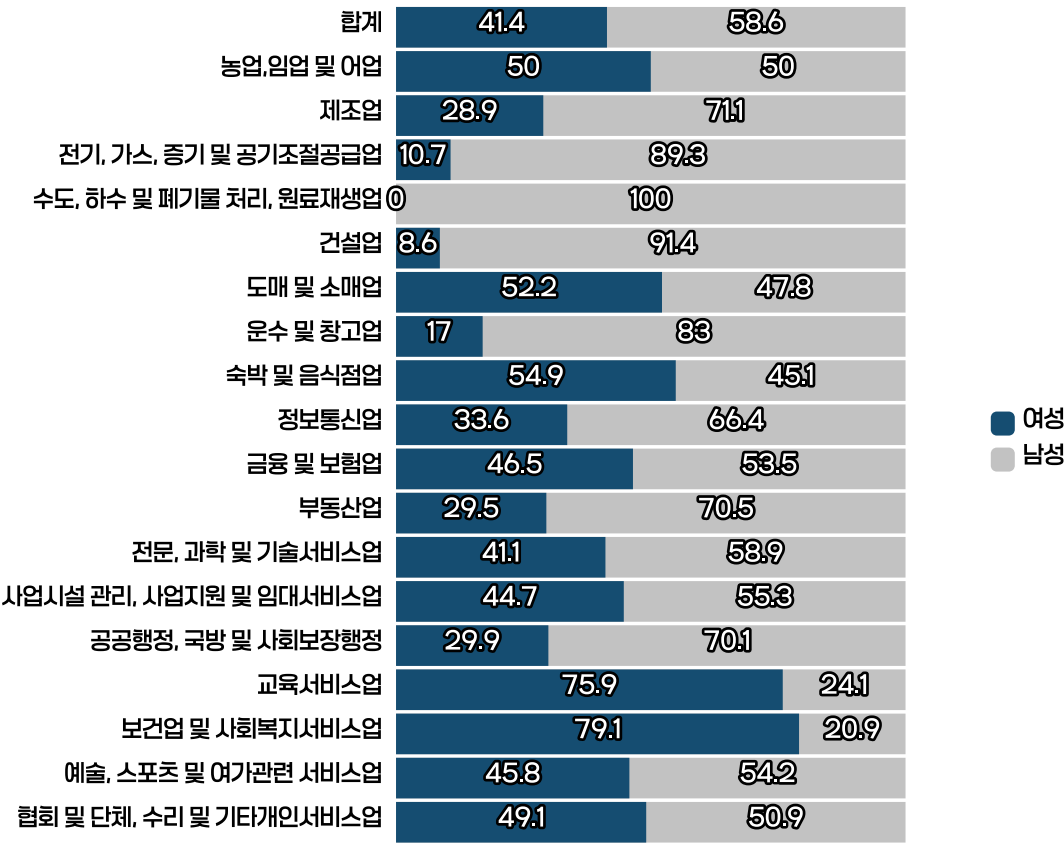
[4-31 평생교육 참여 여부 및 형태]

[4-32 평생교육 만족도]

성별/산업별 취업자

서구 성별/산업별 취업자(2024)

단위 : %



자료 : 국가데이터처,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분석(1분기, 4월 15일 기준)
주 : 지역별고용조사 자료로 조사기관과 조사시점의 차이로 사업체조사보고서와 상이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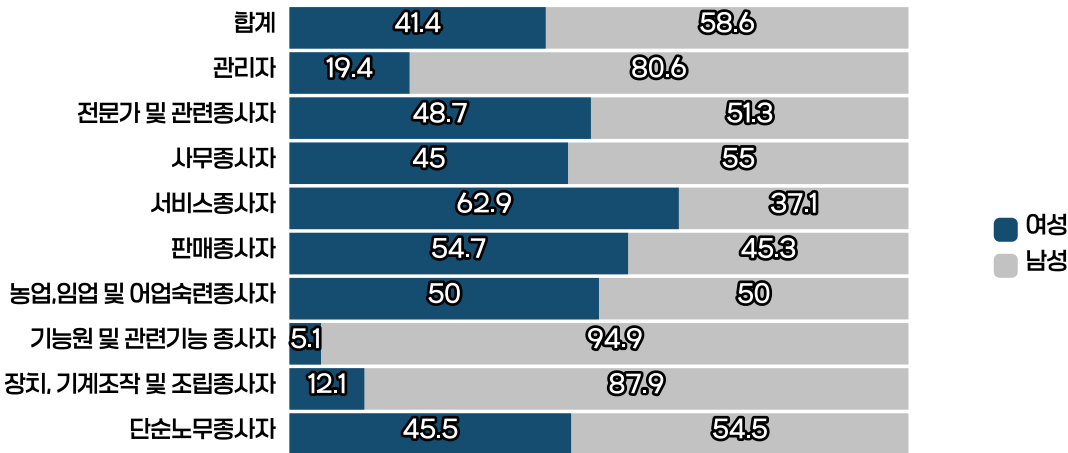
- 2024년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서구의 전체 취업자 중 여성비율은 41.4%임
- 여성비율이 높은 산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79.1%) > '교육서비스업'(75.9%)
'숙박 및 음식점업'(54.9%) > '도매 및 소매업'(52.2%) 순임
- 반면,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의 모든 종사자는 남성이며 '건설업'의 남성비율 또한 91.4%로 여성취업이 낮은 산업임

[5-8 산업별 취업자]

성별/직업별 취업자

서구 성별/직업별 취업자(2024)

단위 : %



자료 : 국가데이터처,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분석(1분기, 4월 15일 기준)
 주 : 지역별고용조사 자료로 조사기관과 조사시점의 차이로 사업체조사보고서와 상이할 수 있음

- 2024년 서구 취업자 중 여성 취업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직업은 '서비스종사자'(62.9%)임.
 그 뒤로 '판매종사자'(54.7%), '농업, 임업 및 어업·수산업 종사자'(50.0%),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48.7%), '단순노무종사자'(45.5%), '사무종사자'(45.0%), 순으로 이어짐
- 이에 비해 남성 취업자는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94.9%),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87.9%), '관리자'(80.6%)의 비율이 높음

[5-9 직업별 취업자]

치매진료환자 및 치매유병률

서구 치매진료환자 여성비율(2021~2023)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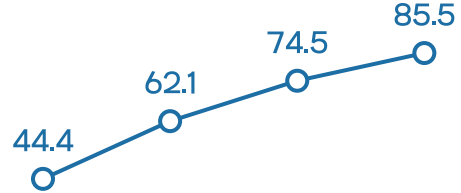


2021 2022 2023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lra빅데이터 개방포털

서구 연령별 치매진료환자 여성비율(2023)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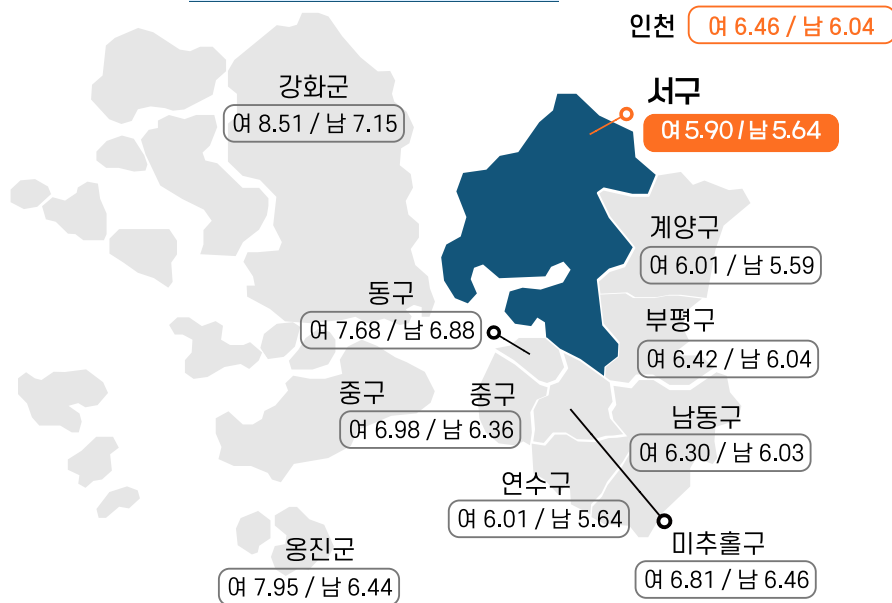


60~69세 70~79세 80~89세 90세 이상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lra빅데이터 개방포털

군구별 추정치매유병률(2024)

단위 : %



자료 : 중앙치매센터 <http://www.nid.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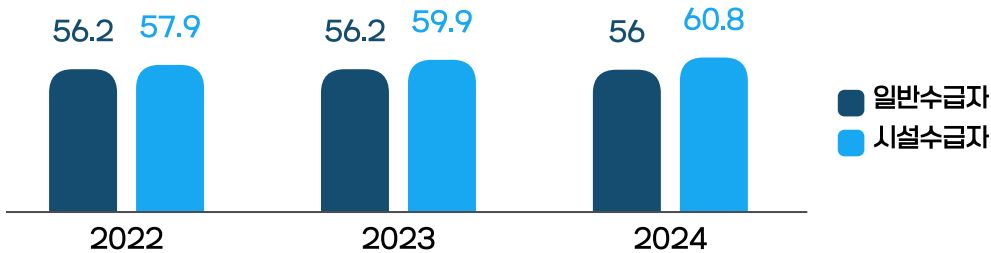
- 주 : 1) 2023년 치매역학조사(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2024) 성, 연령별 유병률을 적용함
 2) 추정치매유병률이란 당해연도 노인인구의 치매유병률을 추산할 때에는 2023년 치매역학조사 결과를 통해 산출된 유병률에 대해 통계청에서 가장 최근에 제시한 인구센서스의 성, 연령, 지역별 노인인구를 표준인구로 적용
 3) 지역별 추정치매환자 수=(성별·연령별 치매유병률×성별·연령별(각 5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수)
 4) 지역별 추정치매유병률=(추정치매환자수÷60세 이상(또는 65세 이상) 주민등록연앙인구수)×100

[6~15 치매진료 현황]
 [12~25 군구별 치매유병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성비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성비율(2022~2024)

단위 : %



자료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통계
 주 : 시설수급자는 보장시설(장애인 거주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정신재활시설 등)의 수급자임

- 2024년 서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30,950명 중 여성은 17,411명으로 전체 56.3%를 차지함. 여성수급자의 94.8%(16,509명)는 일반수급자이며 시설수급자는 902명임
- 2024년 일반수급자의 여성비율은 56.0%이며, 시설수급자의 60.8%은 여성임
- 지난 3년간(2022~2024년) 국민기초생활 시설수급자의 여성비율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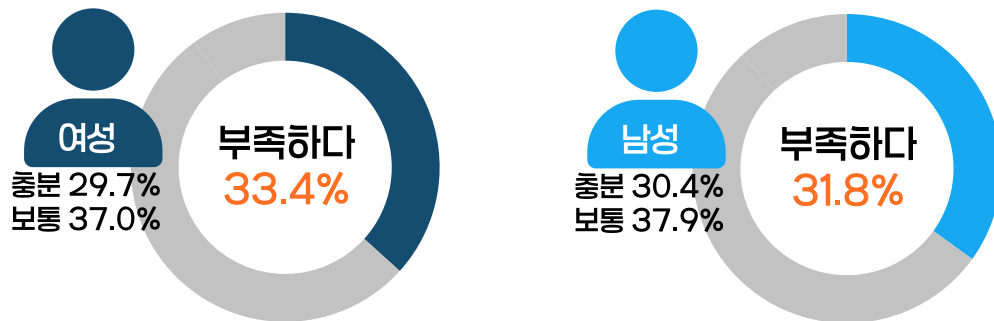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합계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2022	25,636	14,437	11,199	24,416	13,731	10,685	1,220	706	514
2023	28,102	15,853	12,249	26,712	15,020	11,692	1,390	833	557
2024	30,950	17,411	13,539	29,467	16,509	12,958	1,483	902	581

[7-11 성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문화시설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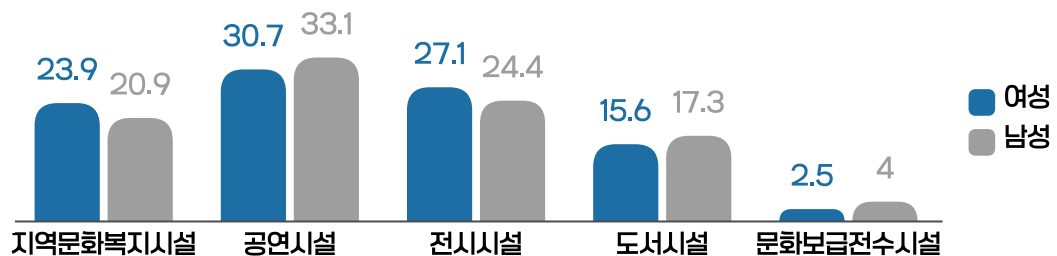
서구 문화시설 수에 대한 견해(2023)



자료 : 인천광역시 사회조사 / 인천의 사회지표_서구

서구 확충이 필요한 문화시설(2023)

단위 : %



자료 : 인천광역시 사회조사 / 인천의 사회지표_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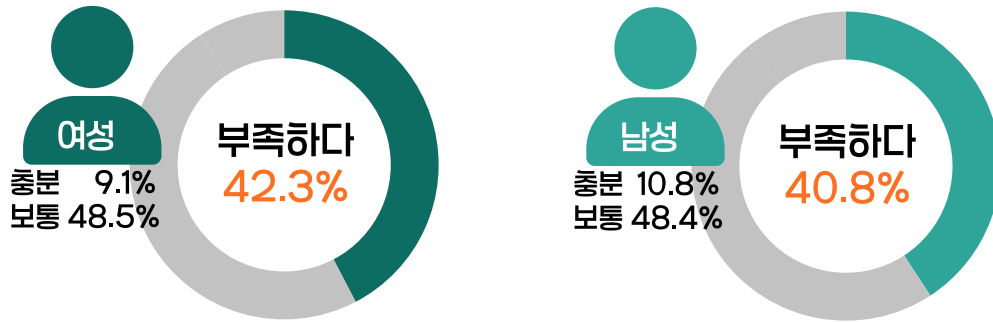
- 2023년 인천시 사회조사에 참여한 서구민 10명 중 약 3명은 문화시설 수에 대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족하다'는 여성(33.4%) 응답률은 남성(31.8%)보다 높았음
- 여성과 남성 모두 '공연시설'에 대한 확충이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었으며 이는 여성(30.7%)보다 남성(33.1%)의 응답률이 더 높았음
- 여성은 남성보다 '지역문화복지시설', '전시시설'을 꼽은 비율이 더 높았음

[9-1 문화시설 수에 대한 견해]
[9-2 확충이 필요한 문화시설]

체육시설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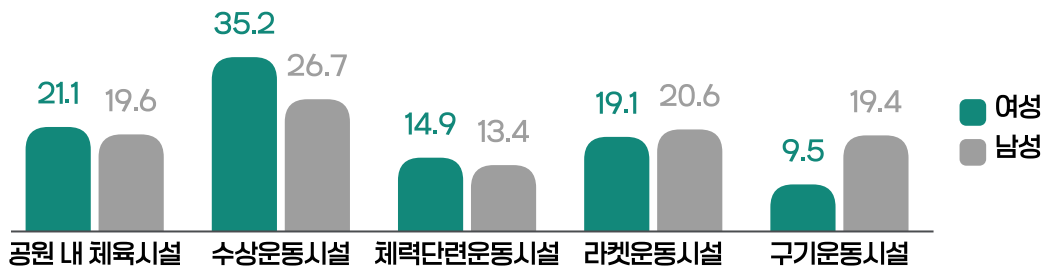
서구 체육시설 수에 대한 견해(2023)

단위 : %



자료 : 인천광역시 사회조사 / 인천의 사회지표_서구

서구 확충이 필요한 체육시설(2023)



자료 : 인천광역시 사회조사 / 인천의 사회지표_서구

주 : 1) 확충이 필요한 체육시설 - '기타' 여성 0.1%, 남성 0.3%

2) 수상운동시설은 수영장 등, 체력단련운동시설은 헬스, 요가 등, 라켓운동시설은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등, 구기운동시설에는 야구, 축구, 배구 등이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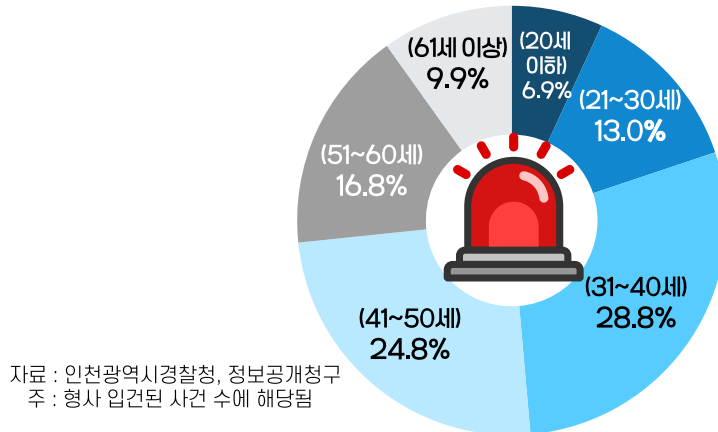
- 2023년 인천시 사회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서구민의 10명 중 약 4명은 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더 부족하다는 인식이 높았음
- 여성은 '수상운동시설'(35.2%) > '공원 내 체육시설'(21.1%) > '라켓운동시설'(19.1%) > '체력단련운동시설'(14.9%) 순으로 확충 수요가 있었으며, 남성은 '수상운동시설'(26.7%) > '라켓운동시설'(20.6%) > '공원 내 체육시설'(19.6%) > '구기운동시설'(19.4%) 순으로 이어짐
- 특히, '구기운동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남성의 응답률이 여성을 크게 앞서는 것으로 조사됨

[9-3 체육시설 수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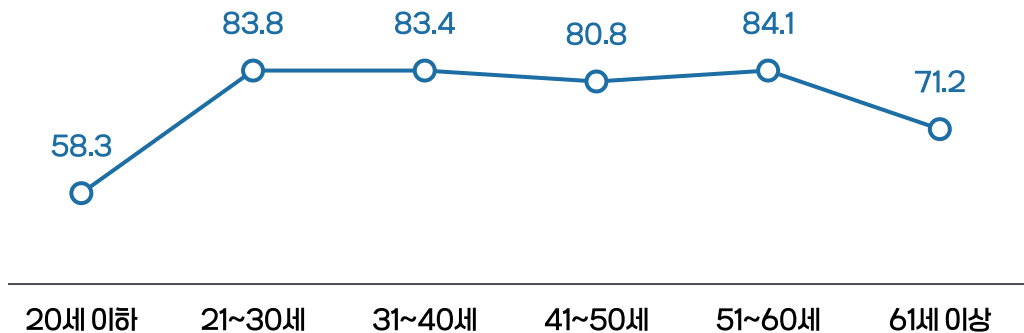
[9-4 확충이 필요한 체육시설]

서부경찰서 가정폭력 피해자 현황

서부경찰서 연령별 가정폭력 피해자 구성비(2023)



서부경찰서 연령별 가정폭력 피해자 여성비율(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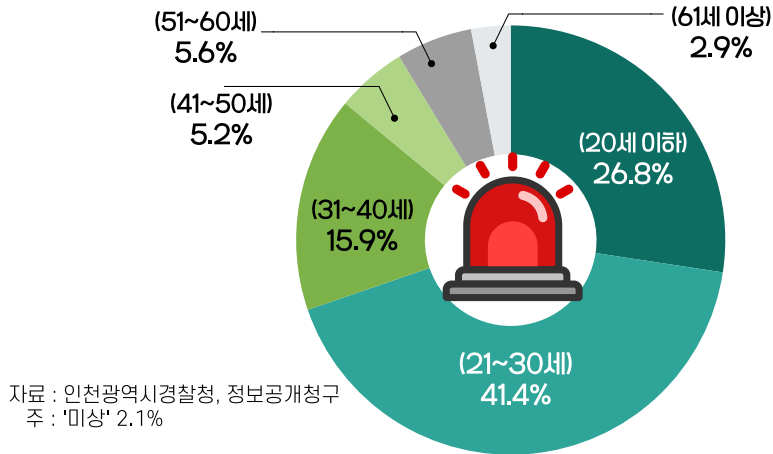
자료 : 인천광역시경찰청, 정보공개청구
주 : 형사 입건된 사건 수에 해당됨

- 서부경찰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형사 입건된 가정폭력 사건은 총 525건임
피해자 중 '31~40세'의 구성비가 28.8%로 가장 높고 '41~50세'(24.8%), '51~60세'(16.8%), '21~30세'(13.0%), '61세 이상'(9.9%), '20세 이하'(6.9%) 순으로 이어짐
- 가정폭력 피해자의 10명 중 8명(80.0%)은 여성임. 각 연령대별 가정폭력 피해자 여성비율을 보면, '51~60세'가 84.1%로 가장 높고 '20세 이하'는 58.3%로 가장 낮음

[10-8 가정폭력 피해자 현황]

서부경찰서 성폭력 피해자 현황

서부경찰서 연령별 성폭력 피해자 구성비(2023)



서부경찰서 연령별 성폭력 피해자 여성비율(2023)



20세 이하	21~30세	31~40세	41~50세	51~60세	61세 이상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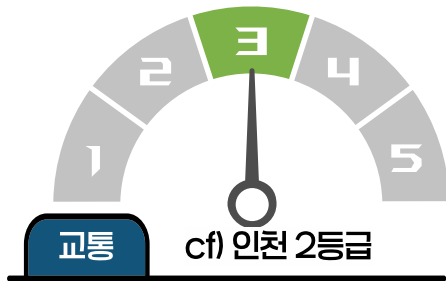
자료 : 인천광역시경찰청, 정보공개청구
주 : '미상' 여성비율은 90.0%

- 서부경찰서 통계에 의하면 2023년 성폭력 사건은 478건 발생함
- 피해자 10명 중 약 7명(68.2%)는 30세 이하인 것으로 나타남. 세부적으로 보면, '21~30세' 피해자가 41.4%로 가장 많고 '20세 이하'는 26.8%임. 그 뒤로 '31~40세'(15.9%), '51~60세'(5.6%), '41~50세'(5.2%), '61세 이상'(2.9%)로 높은 구성비를 보임
- 성폭력 피해자의 80.1%는 여성이었으며, '41~50세'의 피해자의 여성비율이 92.0%로 가장 높았음

[10-9 성폭력 피해자 현황]

지역안전지수

서구 지역안전지수(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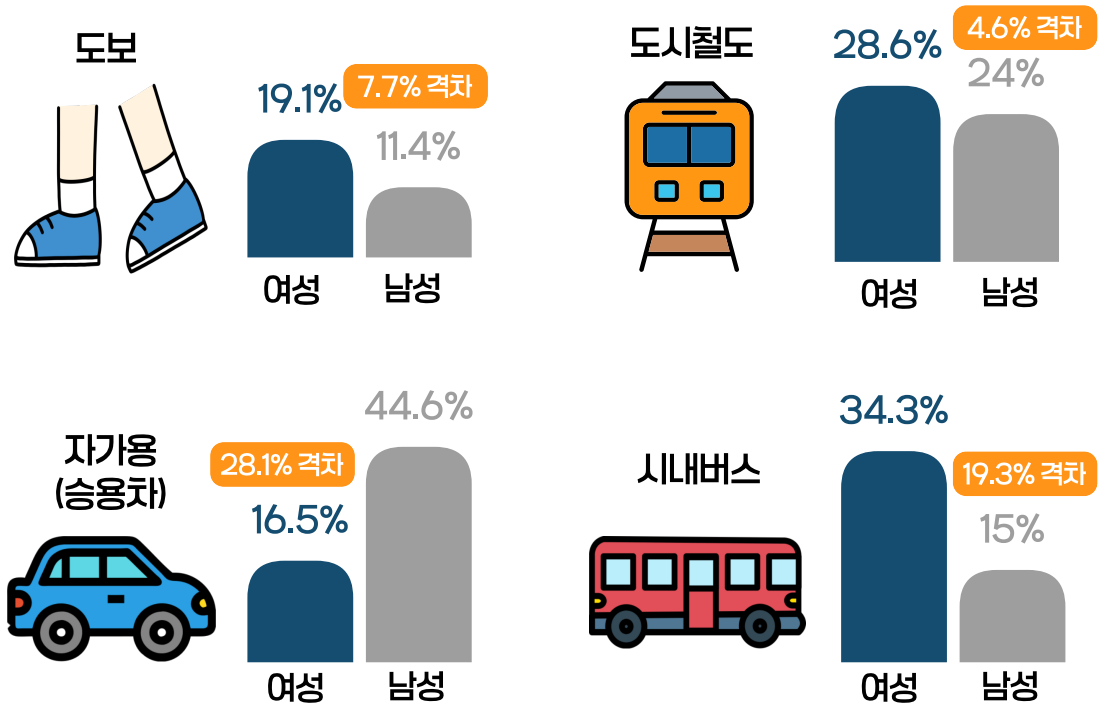
자료 : 행정안전부, 지역안전지수(생활안전정보)
주 : 1등급일수록 안전

- 2024년 서구의 지역안전지수를 살펴보면, '화재', '범죄', '자살', '감염병'은 2등급, '교통' 3등급, '생활안전' 4등급임. '생활안전'의 안전 등급이 가장 낮아 다른 분야에 비해 안전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됨
- 같은 해 인천시와 비교하면, '교통'은 인천(2등급) 보다 등급이 높아 안전도가 낮았으며, '자살'과 '감염병'은 인천에 비해 등급이 낮아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확인됨

[10-1 지역안전지수]

성별 통근(통학)교통수단

서구 통근(통학) 교통수단(2024)



자료 : 인천광역시 사회조사 / 인천의 사회지표, 서구

주 : '기타'에는 자전거, 오토바이, 시외·고속버스, 택시, 통근 및 통학버스, 철도, 1인 교통수단, 기타가 포함됨
(기타 여성 1.5%, 기타 남성 5.2%)

- 2024년 서구민의 통근 및 통학 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살펴보면, 응답자 여성의 34.3%는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반면, 남성은 '자가용(승용차)'(44.6%)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음
- 성별 간 격차가 가장 큰 교통수단은 '자가용(승용차)'으로, 남성은 44.6%인 반면 여성은 16.5%로 약 28.1%의 이용률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외에도 여성은 남성에 비해 '시내버스', '도보',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10-21 통근(통학)의 교통수단]

2025 서구 **성인지통계** 요약본

2025 Seo-gu Gender Statistics



인천광역시 서구